

윤석열 대통령, '국정의 방향과 목표는 오직 국민' 초심 강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취임 후 서문시장 3번째·전통시장 11번째 방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4. 1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최된 '서문시장 100주년 맞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대선 후보 당시 서문시장 유세를 떠올리며 '국정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할 일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시대 추구에 혈안이 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열심히 맘 흘리는 국민 여러 분께서 잘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시민의 맘과 눈물이 담긴 역사의 현장인 서문시장에 이러한 우리의 헌법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왜 정치를 시작했고, 왜 대통령이 됐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낀다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문시장에서 격려와 응원을 힘껏 받았으며, 선거일 바로 전날 마지막 유세에서 서문시장이 보내준 뜨



거운 지지와 합성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힘이 난다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의 맘과 헌신, 시민들의 애정을 언급하며 서문시장은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말했다. 또한 1923년 대구 물산장려운동을 시작으로 6.25 전쟁과 대구 2.28 민주운동, 섬유산업의 성장 등 대구의 파란만장한 역사 한가운데에서 서문시장은 늘 시민과 함께해 왔으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도 묵묵히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문시장이 복합 문화 공

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문시장과 같은 전통시장들이 손님들로 붐비고 더욱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것이라며,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취임 후 윤 대통령 부부의 서문시장 방문은 3번째, 전통시장 방문은 11번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서문시장을 찾아 민심이 흐르는 전통시장에 자주 찾아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축사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백년시장 육성 프로젝트' 등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서문시장의 전경, 역사서의 기록, 엽서, 신문 기사 등이 담긴 사진들을 둘러보면서 서문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문시장 응원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참여자들이 씨앗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대구 시화인 목련 씨앗이 날아와 자라나서 대형 목련 꽃나무가 되는 형상을 LED 화면에 구현한 것으로, 비상(飛翔)하는 서문시장을 상징한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시민, 서문시장 상인, 지역문화를 활용한 창업 소상공인인 로컬크리에이터, 이영 중기부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서문시장 100주년을 축하했다.

최광수/기자

DGB금융그룹, 경북 양봉농가 후원금 전달식 열어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 취약계층 벌꿀 전달 등 7천만원 상당 후원



경북도는 3일 꿀벌의 실종·폐사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내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DGB 금융그룹 사회공헌재단의 후원금(7천만원 상당)을 한국양봉협회 경북도지회에 전달하는 '양봉농가 후원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DGB금융그룹 회장 김태오, 한국양봉협회 윤화현 회장, 경북도지회 박순배 회장, 조지훈 NGO 굿피플 이사 등이 참석했다.

기증한 후원금은 경북 양봉농가를 위한 밀원수 조성사업, 농가 자녀 장학금 지원, 경북양봉농가 생산 벌꿀 공인인 로컬크리에이터, 이영 중기부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서문시장 100주년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DGB금융그룹(대구은행)에서 추진 중인 ESG경영의 일환으로 화분매개 등 공익적 가치가 큰 꿀

벌산업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기후 변화·밀원부족·꿀벌 진드기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과 지원하고자 하는 곳을 연결하는 NGO 단체인 굿피플에서 두 기관을 연결해 '같이의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나해에 이어 올해도 꿀벌 실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를 위해 후원에 앞장서는 DGB금융그룹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DGB금융그룹의 ESG경영 실천이 도내 다른 기업, 나아가 전국이 함께하는 좋은 세상 만들기로 이어져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신호탄이 되길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기도-미2사단,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상호 우정 다짐하는 식목 행사 열어

'2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등 기념, 경기도-미2사단 식목 행사 개최

경기도와 미2사단이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2사단 건물 앞에서 식목 행사를 열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데이비드 레스퍼란스 미2사단장은 3일 오전에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 체결을 기념하여 장수의 상징인 주목 나무를 함께 심고 한미동맹과 상호 우정의 내용을 담은 표지석을 세웠다.

행사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 데이비드 레스퍼란스 미2사단장을 비롯한 평택시, 한미친선교류협회 등 관련 인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번 행사를 위해 주목 나무와 기념 표지석을 제공했다.

주목 나무는 최근 15년간 미2사단과 실시하는 수목 행사에서 가장 많이 채택해온 수종으로 환경적 조건에 따라 천년을 살기도 하는 장수를 상

징하는 특징이 있다. 즉, 이는 향후 지속될 한미관계와 경기도-미2사단의 우정과 화합을 뜻하는 것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주한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로서 도와 미군과의 관계가 그 어느 지자체보다 각별하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경기도와 미2사단의 우정 또한 깊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미2사단과 한미협력회의 회를 2002년에 구성하여 현재까지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식목일 전, 식목 행사를 열어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환경조사 착수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농경지, 하천 등 바이러스 양성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4월 3일부터 환경조사에 들어간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환경조사는 처음 발생한 2019년 10월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검출 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조사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환경조사는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10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농경지, 매몰지, 하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농경지 조사는 농업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3일부터 약 3주 동안 진행되며, 농경지 주변 약 160개 지점에서 토양 등을 채취하고 바이러스를 분석한다.

집중호우가 자주 일어나는 여름철부터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43개 하천수 지점을 조사하고 16개 댐으로 유입되는 야생멧돼지 등의 폐사체를 감시한다. 하천수 조사의 경우 농림축산검

역본부와 지역을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 분석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총괄한다.

댐으로 유입되는 폐사체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육안으로 감시한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로 훼손, 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매몰지 136곳에 대해서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한다. 조치가 필요한 매몰지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이설 또는 소멸할 예정이다.

정원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산이나 하천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접근하지 말고 즉시 110 정부민원콜센터나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성지아/기자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군 YEONGYANG-GUN

숲

한국의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영양의 숲을 찾아가세요.

길

산과 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길, 영양의 길을 걸으세요.

물

맑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곳, 영양의 물을 마시세요.

빛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영양의 별을 보시세요.

맛

산과 들의 향이 가득한 음식, 영양의 맛을 즐기세요.

심

자연과 벗어날 수 없는 마음, 영양의 마음을 품으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와와 남이도,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사계곡, 천벽공원, 측백수원,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물마을, 주심마을, 감천마을, 지강마을, 금촌마을, 감산마을,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재민하늘보도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생물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전라남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4일 개최

전라남도의회는 4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7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11일부터 3일간 예정되어 있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22명의 의원이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묻고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도민과

의 소통 강화를 위해 MBC, KBC 지상파와 전라남도의회 유튜브와 누리집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LG 헬로비전, 광주CMB 등은 녹화방송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임지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무료

방주차장 지원 조례안' 등 총 20건을 처리하고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서동욱 의장은 "지난주 개막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국제수목비엔날레 등 다양한 메가 이벤트가 전남에서 이어질 예정이다"며 "이런 기회를 계기로 전남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해명/기자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삼성전자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소통' 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이 31일(금) 평택 고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을 위한 삼성전자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소통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환우 평택포럼 도시환경분과 위원장의 사회로, 발제는 정건재 남서울대학교 교수와 안승홍 한경국립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 김상곤 부위원장, 김승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정형민 평택시 미래도시전략국장, 안산호 고덕면 이장협의회 회장, 이

재덕 평택포럼 전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인근 지역 주민들과 삼성전자 간의 소통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삼성전자-평택 소통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상생방안을 도출하고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삼성전자가 임지하면서 고용, 지방세 증가 등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세카가 건설현장 구내식

당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삼성단지 인근지역의 상권은 점차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포세카 측에서 평택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 농민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상생을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조혜영/기자

충남도의회 다음아트홀 '반가워~봄' 전시회

충남도의회는 3일부터 29일까지 도의회 1층 '다음아트홀'에서 '반가워~봄' 전시회를 열고 (사)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회원 작품 28점을 선보인다.

다음아트홀 2023년 2차 전시전은 (사)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회원들이 함께하는 전시회로, 광현주 작가의 '청사초롱' 도자기 작품을 포함해 서양화, 수채화, 수묵화 등 28개의 다양한 작품을 4주 동안 전시할 예정이다.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회원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미술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예산지부 유희선 지부장은 "전시회를 찾는 분들이 미술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고 마음의 기쁨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시 소감을 전했다.

조길연 의장은 "생기 완연한 봄을 맞이해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회원들의 작품을 우리 충남도의회 다음아트홀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강남대 중국 유학생들과 문화교류의 시간 가져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31일 강남대학교 중국 유학생 60명과 문화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윤원균 의장과 신현녀 의원은 유학생들에게 용인특례시의회의 역할 및 용인의 문화를 소개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학생들은 의회 청사를 둘러본 후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지방자치와 의원이 하는 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OX퀴즈를 풀며 용인시의 문화와 의회, 지방자치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윤원균 의장은 "용인특례시는 중국 양주시와 자매도시, 태안시와 길림성 도문시와는 우호도시를 맺어 교류를 하고 있다. 오늘의 소중한 만남과 인연을 통해 중국과 좀 더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관계가 지속되길 희망하며, 용인특례시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녀 의원은 "용인특례시의회에 온 것을 환영한다. 여러분들이 중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해

서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제도와 문화를 존중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는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영/기자

광명시의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광명시의회가 3일 의회 3층 운영위원회실에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시의회는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석석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이재한, 정지혜 의원을 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또한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6명도 선정했다.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인 광명시가 2022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 의회가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이번 위촉된 위원들은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일간 광명시의 세입·세출 결산, 시금고 검사 등 1년간 집행 결과를 심도 있게 검사해 검사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다.

안성환 의장은 "이번 결산검사가 행정 사항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만큼 면밀히 검사를 실시해 주길 바란다"며 "재정이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결산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용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청송의 맛'

청송의 자연은 순수합니다.
농부들은 그곳에 '땀과 정성'을 심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청송사과,
태양과 바람이 키우는 신도불이 청송고추,
청송농산물의 새로운 다크호스, 청송자두...

산소카페 청송군이 빚어낸 '청송의 맛'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여의도 금융허브 구상 교두보 착수'...디지털금융지원센터 설계공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조성, 2027년 3월 개관 예정

오세훈 시장이 밝힌 여의도 금융허브 구축 사업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61일간, 국내외 건축가들의 설계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공모 대상지는 영등포구 여의도공원로 119, 여의도 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 529㎡, 총사업비 약 294억을 투입해 연면적 4.46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디지털금융지원센터는 디지털금융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디지털금융허브' 역할로서 디지털금융 인재역량강화, 핀테크기업 육성을 위한 협업 인프라 및 스케일업 지원, 기존 지원시설 및 지역 간 유기적인 연계·결합을 위한 앵커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디지털금융지원센터는 서울 핀테크랩/국제금융센터(SIFC)/국제금융오피스 등 기존 지원시설 및 여의도 금융중심지, 도심권 전통금융, 강남권 벤처자본 등 지역 간 연계·결합 등 디지털금융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다. 금융기관 및 관련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AC/VC 등 투자기관 유치, 법률·회계·마케팅 등 다각적인 경영지원으로 디지털금융 기업 육성을 위한 협업 인프라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며, 현장실무 중심 교육으로 금융, 핀테크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하여 전문인력풀 구축 및 관련기업 매칭 지원, 핀테크 기업간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심사품질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설계공모 제도를 개선한다. 심사위원 사전간담회를 공모 공고 전·후 2회로 늘리고 심사 전 과정을 공개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설계공모 공고 후 심사위원회 사전간담회를 1회 운영하고 있었으나, 심사품질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설계공모'는 공모 전·후 2회 심사위원 간담회를 진행한다.

공고 전에는 심사위원들의 면밀한 현장조사 후 심사 방향에 대한 논의와 전문성 있는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모지침서에 명시했고, 건

축계획의 방향성 등을 더욱 명료하게 제시했다.

공고 후에는 두 번째 사전간담회를 진행하여 사업의 목적과 심사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본 심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계공모 심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심사하는데 그동안 2단계심사만 대신인 공개해왔으나 이번 공모부터는 1, 2단계 심사과정을 모두 공개하여 심사과정에 대한 의문점과 불공정 심사는논란을 해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심사품질 최초 종이없는 '디지털 공모·심사'의 전환으로 시민들에게 열린 공개심사 방식을 적용해왔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설계공모 제도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설계공모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2023년 3월 31일 ~ '23년 5월 30일까지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을 통해 참가 등록을 할 수 있다.

참가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4월 6일에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2023년 5월 30일까지 설계안 접수, 이후 기술검토와 두 차례의 작품

심사를 거쳐 '23년 6월 23일에 최종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외 건축사는 모두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총 3인까지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외국 건축사 자격만 있는 경우는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모일정, 설계지침, 참가 등록 방법 및 향후 일정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총 6명으로 권원철 에이그라운드건축사사무소 부사장, 김현정 그라운드 건축사사무소 대표, 맹필수 홍익대학교 교수, 이은경 이엠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진오 (유)건축사사무소 더사이 대표가 참여한다. 예비 심사위원으로 한태희 건축사사무소 클라우드나인 대표를 선정했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여의도에 국제금융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 건립이 본격화됐다"며, "재능 있고 창의적인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디지털금융지원센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서울 중구, 4차산업 융합인재 양성 적극 지원

인공지능 대화 시스템 '챗지피티(ChatGPT)'가 혁신을 주도하는 가운데 서울 중구가 미래세대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에 나선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가상현실(VR) 등 4차산업 관련 강좌는 학교 현장에서 발 빠르게 도입하여 다루기엔 한계가 있고, 사교육을 통해 배우려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중구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4차산업을 다양하게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초·중·고교에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여 특화프로그램과 방과후 교실에 4차산업 교육을 도입하도록 돕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관내 초·중·고 8개교에 코딩,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로봇, 사물인터넷 강의에 필요한 교육경비 1억3689만원을 지원했으며, 중학교

6개교와 고등학교 3개교에는 코딩, 로봇 이외에도 3D, 드론, 인공지능 융합활동,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 1억7548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다.

9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170개 프로그램에는 올해 약 4000여명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27억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중 41개 프로그램, 6억7천만원이 4차산업 관련 프로그램에 편성됐다. 이중 창의 로봇, 입체 과학 강좌는 매년 참가가 일찍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중구청소년센터에서도 미래기술을 체험하고 즐기는 청소년 축제를 매년 개최한다.

오는 6월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을 주제로 가상현실 VR, AI, IOT 등 미래기술 콘텐츠를

체험하고 융합적 사고를 키우는 청소년들의 4차산업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아울러 중구는 4차산업 활동의 거점이 될 4차산업체험센터(가칭 스마트에듀케이션)조성을 구상 중이다. 로봇, 드론, 디지털 드로잉, VR/AR,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체험하고 자유로운 아이디어 구현이 가능한 창작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에서 관내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학생 1인당 보조금은 89만4천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다"며, "중구 학생들의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4차산업교육에도 아낌없이 지원해, 공교육과 사교육의 빈틈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장성원/기자

금천구, 도시를 경작하며 일상의 활기를 되찾는다!

금천구, 금천 도시농업체험장 개장

금천구는 4월 1일 '금천 도시농업체험장'을 개장했다.

금천구는 구민들이 도심 속에서 손수 작물을 가꾸고 재배하는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양천 금천한내교 일대(독산동 719-5 좌안)에 도시농업체험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는 텃밭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 요구에 따라 구획당 면적을 일부 조정해 텃밭 1구획당 7㎡ 규모로 총 380구획을 만들어 지난 3월 공개 추첨을 통해 주민 380명에게 분양했다.

개장식은 △ 개장선언 △ 발차리 확인 △ 운영규약 작성 및 유의사항 안내 △ 영농교육 △ 모종 배부 및 식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운영규약에는 중금속 비료와 농약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친환경 운영을 강조했다.

금천구는 도시농업체험장 이용 주민들의 영농활동을 위해 텃밭 1구획당 상추 모종 24본과 호미 1개를 제공했다.

또한 농업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도시농업전문가를 초대해 현장에서 직접 모종 심는 방법, 씨 뿌리는 방법, 채소 관리요령을 교육했다.

주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텃밭을 분양받은 주민들은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가족 단위로 모여 흙을 일구고 모종을 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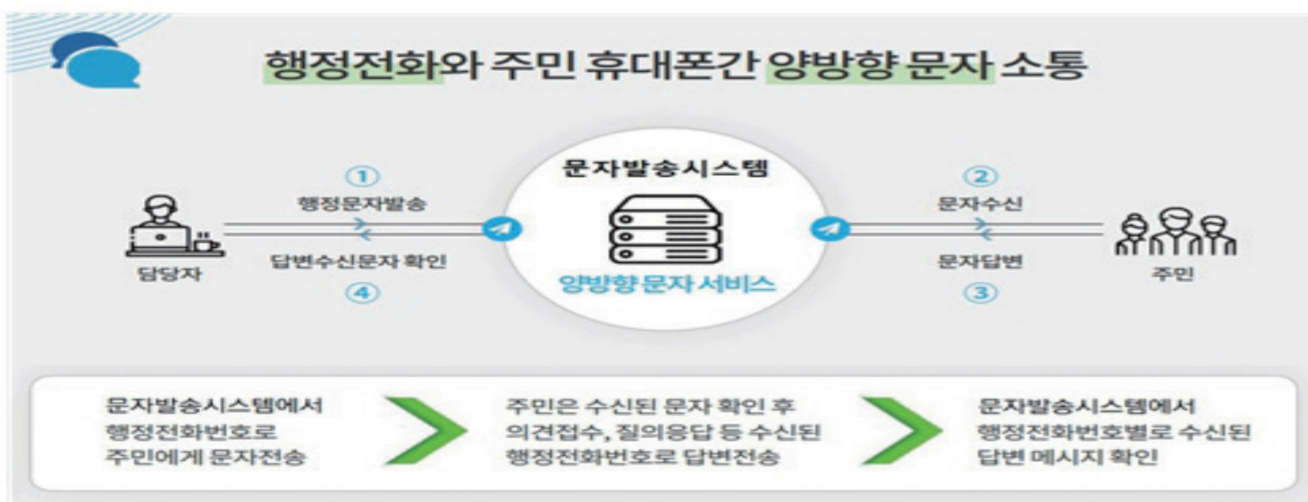
텃밭을 분양받은 한 주민은 "당첨되기가 로또만큼이나 힘들다"라며, "텃밭에서 먹을거리를 손수 재배해 먹는 재미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 도시농업 체험장이 주민들에게 채소를 심고 가꾸며 일상의 활기를 되찾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 체험의 기회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향신/기자

성동구, "행정전화번호로도 문자 보낼 수 있네~!"



서울 성동구가 행정전화번호와 주민 휴대폰 간에 문자로 송수신이 가능한 행정전화번호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는 구청에서 각종 안내사항 등에 대해 행정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주민은 문자 확인이 가능하나 문자로 회신할 수 없는 단방향 시스템으로 전화, 메일 등을 통해서 회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담당 직원이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문자를 받은 주민이 확인 후 바로 행정전화번호로 문자 회신할 수 있고, 또한 궁금한 사항도 문자로 문의 가능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행정전화번호 양방향 문자서비스는 각종 행정업무에 대해 주민과 업무 담당자 간에 간단하게 문자로 주고 받거나 주민이 간단한 사항을 문자로 문의 시 이용하면 된다.

구에서는 이를 통해 업무 담당자가 통화중이거나 부재중일 때 여러 번 전화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언어장애 등 전화통화가 어려운 주민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문의 사항이 많거나 복잡한 내용이면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현재 59개의 행정전화번호로 양방향 문자서비스가 가능하며, 현재는 주로 보건위생이나 설문조사 등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서비

스를 운영해 가면서 주민들의 호응도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 주민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전화 통화가 어려운데 이렇게 문자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좋다"며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양방향 문자서비스는 주민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주민, 직원 모두가 좀 더 편리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많이 이용돼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긴급한 민원 등 불편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제 문자전용 휴대전화로도 보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성원/기자

위기가구 발견하면 '송파 희망톡'으로 알려주세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로 간편하게 비대면 제보, 복지정보 수시 제공

송파구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과 다양한 복지정보 제공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 '송파 희망톡'을 4월 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송파 희망톡'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위기가구를 우리 이웃이 찾아내어 제보하는 온라인 복지 상담창구다. 기존의 대면·유선 신고 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으로 위기가구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제보하거나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기가구 제보 방법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송파희망톡'을 검색해 친구로 추가한 후, 1대 1 채팅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위기가구 등을 입력하면 된다. 관련 부서에서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방문과 심층상담을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업무종료 후

에는 다음날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용이한 복지동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 돌봄단을 중심으로 '송파 희망톡' 이용 독려에 나설 계획이며, 주민생활 밀접종사자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범위를 넓혀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구는 SKT와 협력, 주1회 자동전화로 AI(인공지능)가 안부 확인을 하는 'AI안부확인서비스'와 취약계층 집 내부에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하여 조도 및 전기량으로 실시간 안전 확인하는 '스마트플러그 설치 사업' 등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해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변의 따뜻한 제보로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송파 희망톡'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며 "송파

구는 세심한 복지안전을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포용복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규식/기자

수원시, 수원화성 가치 높이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역주민과 상생할 방안 모색

이재준 수원시장,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완화해도, 잘 보존할 수 있어”

수원시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 수원화성 주변 지역의 규제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한다.

수원시와 김영진·김승원 의원은 3월 31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수원화성 가치 증진을 위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원화성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영진·김승원 의원의 인사말, ‘수원화성 주변 도시관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이재준(사)디자이너그룹 이상도시 소장의 발제, 토론으로 이어졌다. 채미옥(사)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에 완충지역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현상변경 허용 기준이 최초로 고시된 후 2010년 규제기준 변경 고시를 해 현재 성곽 외부 500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려워 규제 완화·규제범위 축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성곽 전체(둘레 5.47km)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성곽에서 500m 거리까지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수원시 전체 면적(121.181km²)의 9%(개발 가능 면적 대비)에 이르는

다. 도시 중심 지역에 규제가 적용돼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규제로 인해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노후도가 높아지고, 편의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슬럼화되고 있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는 형태가 아닌, ‘생활인구’와 주민과 문화재가 상생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 남한산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200m, 송례문(서울

시)은 100m, 풍문(전주시)은 200m”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500m에서 200m로 조정하는 규제개선을 발표한 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허용 기준 적정성 검토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는 정부의 규제 개선 움직임에 맞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 축소를 포함한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보존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존지역을 200m로 완화해도,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왜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를 잘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인천시 중구, “전통시장 화재, 예방이 가장 중요” 김정헌 구청장 전통시장 안전 점검

인천중부소방서 등과 합동 점검, 화재 취약 요인 등 면밀히 살펴

인천광역시 중구는 최근 현대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관내 전통시장 화재취약 시설 안전 점검에 나섰다.

3일 중구에 따르면, 김정헌 인천중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인천중부소방서와 함께 신평국제시장, 신흥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 시장 내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 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매설식 소화전의 사용법을 시연한 데 이어, 점포에 설치된 화재 알람 시설(열, 불꽃, 연기 감지 시 119 소방관서 연계 시스템) 등의 작동 실태를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화재 안전 대책과 관련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있었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한 형태·재질의 전통시장 아케이드를 난연성 재질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구는 지난달 27일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전통시장 3곳에 대해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전문가, 시장상인회 등과 합동 점검을 진행, 현장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상인 안전교육 등도 병행한

바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중구 차원에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 자율적인 화재 예방 활동”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 상인회와 상인들의 적극적인 조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중남기자



2023고양국제꽃박람회, 전시 참가업체 워크숍 실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2023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사장 내 정원·문화·전시업체가 참가하는 ‘전시 참가업체 워크숍’을 지난 3월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고양국제꽃박람회 전시공간은 ▲꽃박람회 행사장에서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하는 10m 대형 토끼 ‘고양레빗’과 함께하는 ‘고양 레이 가든’ ▲꽃과 함께하는 순간의 기억을 거울형 구조물과 회전목마 등으로 조성된 ‘모네타 가든’ ▲곤충과 꽃이 함께하는 동심 놀이터 ‘어린이 정원’ ▲이끼와 대나무 등 사색을 즐기며 감상할 수 있는 ‘생태정원’ ▲환경친화 라이프스타일 공간 ‘꽃과 생활 디자인 정원’ 등 ▲고양국제꽃포럼, 국제꽃어워드쇼가 개최되는 ‘화훼교류관’ 꽃예술 전시사업, 꽃박람회 브랜딩 게이트



연출, 분화품종 전시 등 실내외 다양한 전시 테마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날 참가한 전시분야 참가업체는 위 사업을 진행하며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주제인 ‘flower in the life’를 주제로 수준 높은 전시 연출과 관람객의 행복한 경험 제공, 철저한 안전 확보 등 우수한 사업 수행 및

전시 공간 조성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꽃박람회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및 참가 화훼·전시전문가는 온라인 박람회 전용 페이지에서 각 전시 공간 소개와 함께 만나볼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한영기자

화성을지역위원회-화성시, 트램·무봉산 자연휴양림·교통안전 예산 확보를 위한 당정협의회 실시

지난 31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관련 국소장은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모인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동탄 트램 조속 추진, 무봉산 자연휴양림 상반기 완공, 시민 교통안전 개선 등 살기 좋은 동탄을 만들기 위한 예산확보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정은 다가오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은 설계비, 차량제작비, 공사감리 등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올해 하반기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으며,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건축공법 변경, 차량 회차지 확장 등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 편성하여, 올해 상반기 준공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그밖에도 동부대로 지하차도 방음시설 교체 공사,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 육교 보수공사, LED도로 표지병 설치, 도로재포장 공사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특히, 동부대로 지하차도 방음시설 교체의 경우,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을 계기로, 방음터널의 소재를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교체하는 사항으로, 지역위원회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공사인만큼 시에서 철저히 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동탄 주민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 발전을 위해 의견교환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기 바란다”는 말과 함께, “금일 논의된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및 주민안전을 위해 당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앙부처와 경기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 발전과 시민 안전은 우리시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금일 논의된 안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안전 이외에도 시에서는 화성시 발전을 위해 기준인건비 상향, 특례시 제도 개선 등 여러 현안사항들을 상급기관에 건의했는데, 건의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실에서도 힘써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100개 업체 선정, 최대 200만 원까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광명시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개선사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 시스템 개선, 홍보 및 광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창업한 지 6개월이 넘는 자영업자로 2022년 9월 13일까지 사업자 등록한 소상공인이다.

시는 지난해 1억 8,000만 원이던 예산을 올해 2억 원으로 증액하고, 업체당 지원액도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지난해 10% 이던 자부담금도 올해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지원 분야의 폭도 넓혔다. 우선 시스템 분야는 POS 시스템, 무인주문결제 시스템, CCTV 시스템 등을 추가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 전기 배전판 교체, 세면대·양변기 등 화장실 환경개선 분야가 추가됐고, 특히 소상공인 요구를 반영해 음식점 의사입식 교체도 포함됐다. 공고된 사업 이외에도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선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

시는 공정한 평가를 거쳐 모두 100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가운데 30%는 업력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소상공인을 선정해 경영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탄소포인트제 가맹업소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선정 결과는 경기도 주관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중복을 막기 위해 경기도 대상자 선정 후인 6월 초에 발표한다.

선정된 업체는 10월 20일까지 점포환경개선(간판, 인테리어, 노후 전기 배전판 교체 등), 시스템 개선(POS 시스템, 무인주문 결제 시스템, CCTV 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홍보물, 제품 포장, 오프라인 광고, 상표출원 등) 중 1개 분야를 선택하고 그중 2개의 세부 항목까지 자부담 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공업체는 광명시에 사업자 등록한 업체로 한정하며, 과도한 사업독점을 막기 위해 업체당 시공할 수 있는 개소는 10개로 한정된다.

윤용민기자

이천시, 보고 싶고 갖고 싶은 일상의 모든 도자기

이천도자기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로 정상적인 축제운영이 어려웠던 탓에 올해 축제를 개최하는 이천 도예인들의 각오가 남다르다. "삼시세끼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37회 이천도자기축제는 참여하는 공방들이 남다른 품격의 도예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천시는 이번 축제는 240여개 공방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축제로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도자기 작품을 감상하고 축제기간에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으로 구매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방문객의 눈이 즐겁고, 도자기를 선택하는 구매자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객 편의를 고려해 이천도자예술마을(에스파크) 중앙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양쪽 직선 도로(750m) 구간과 사기막골 도예촌에서 설치 운영되는 전시 판매ZONE에서는 이천 도자기를 대표하는 7개 마을, 240여개 공방이 참여하여 삼시세끼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각 마을이 기획해 선보이는 아름다운 도자기 퍼레이드쇼가 펼쳐지게 된다.

도자기축제를 준비 중인 도예인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자축제로 37년의 역사를 이어왔기에 축제

장에는 도예인 각자가 엄선한 작품을 선보이게 되며, 도자기축제의 명성에 어울리는 작품들로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시 판매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축제기간에 한정해 15만원 이상 도자기 구매 고객에게 공모전을 통해 선정 제작된 특별한 도자기 기념품이 제공되고, 이천 롯데아울렛과 함께 하는 '롯데아울렛 구매고객 축제장 방문시 도자기제품 5% 할인'과 이천도자기축제장 방문 인증샷 제시 시 롯데아울렛 엔젤리너스 아메리카노 무료교환쿠폰, 이천쌀(500g)증정, 놀이시설 이용권(와트만기차, 회전목마) 중 택1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천시는 유구한 도자문화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대한민국 도자문화를 이끌고 있는 이천시의 노력이 제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전시 판매장 외에도 명품도자명장기획전, 이천도자기 테이블웨어전, 디지털기술융합관을 운영해 도자문화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세계가 인정하는 도자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제37회 이천도자기 축제는 이천도자예술마을(에스파크)와 사기막골 도예촌에서 4월 26일부터 5월 7일(12일간)까지 열린다.

이성용기자

김동연지사, 골드버그 美 대사와 '야구 외교'로 혁신동맹 강화, 프로야구 개막전 관람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동식, 한-미 간 다양한 관심사 의견도 나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국대사와 프로야구 개막전을 함께 관람하는 '야구 외교'를 통해 경기도와 미국 간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김동연 지사는 1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3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개막전 KT위즈와 LG트윈스의 경기를 관람했다. 이날 관전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아담 H 스티어링 전 슬로바키아 대사(미국대사 초청), 윌라드 벌러슨 미8군 사령관, 이재준 수원시장 등도 함께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2023년 프로야구 개막과 우리가 사랑하는 KT위즈 10년 창단식을 맞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미8군 사령관인 윌라드 벌러슨 사령관, 경기도에 사는 도민 중에서 다문화 가족, 장애인, 70세가 넘는 어르신들을 함께 초청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다문화 가족, 장애인, 어르신을 포함해 전 도민들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건전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팀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보여 주시고 다치지 말고 기량을 뽐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관람은 지난해 11월 골드버그 미 대사의 경기도 초청 방문 당시 열렬한 야구팬인 김 지사가 프로야구 경기 동반 관람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골드버그 대사는 김 지사와의 접



견을 마친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환대와 파트너십 강화에 감사하다"라며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고대하며, 하루빨리 KT위즈 경기를 보러 수원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접견 당시 두 사람은 혁신경제에 대한 협력관계인 '혁신 동맹'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반도체 등 경제협력에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장을 방문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획 경기 관람권'을 널리 알리고, 도내

유일한 프로야구 연고 구단인 KT위즈의 창단 10주년을 축하했다.

김 지사는 KT위즈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행사에 참여한 뒤 관람석으로 이동해 '기획경기 관람권'을 지원받은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들은 물론 특별 초청된 다문화 가족들과도 함께 했다. '기획경기 관람권'은 도내 연고 4대 프로스포츠 홈경기를 75% 할인된 금액으로 볼 수 있어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가 25%, 프로스포츠단이 50%를 부담하며, 자

부담은 25%다.

경기도는 '기획경기 관람권' 외에도 야구 종목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프로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유일의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20명의 선수가 프로로 진출했다. 또 올해부터는 선수들에게 직접 주어지는 출전수당(경기당 8만 원)을 신설해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오산시,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오산시가 경기도가 주관하는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내 최우수 청렴 도시 이미지를 이어가게 됐다.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는 감사 역량 및 사전예방적 감사 강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방적 감사, 적극 행정 활성화, 자체 감사 활동 내실화 3개 항목 12개 지표에 대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감사기관을 선정하는 평가다.

오산시는 상위범례, 중앙부처 업무편람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 자체 업무편람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정비를 위해 9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7건을 반영한 점,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해 공직자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175건을 처분하는 등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시민감사관 1일 포청천 활동' 등 시민감사관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데 오산시장은 "공정한 감사행정을 위한 사전예방적 감사활동과 꼼꼼한 사후관리 등 다양한 노력이 대내외로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신뢰받은 오산시가 되겠다"고 전했다.

양시현기자



2023 평택시 일자리박람회 개최

평택시는 오는 13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관내 우수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2023 평택시 일자리박람회(취업의 길라잡이 JOB)'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박람회에는 총 48개 우수업체가 참여해 사무·생산·영업·판매 등 여러 직종에서 1254명을 모집한다.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구직자와 인사담당자가 1:1 개별면접을 진행하고 면접 우수자는 해당 기업체 채용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며, 평택고용센터, 평택상공회의소 등 평택시 일자리센터 협력 기관들은 채용홍보관 부스를 통해 구직자들에게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자들의 불거리와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지문적성검사관, 취업타로관 등 부대행사 부스를 운영해 취업 면접 행사에서 더 나아가 구직자 개인이 스스로 적성을 찾아가는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문서 출력 및 복사 등을 지원하는 문서지원대, 일자리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정보검색대, 이력서에 첨부할 만명함판 사진을 즉석에서 촬영할 수 있는 무료 사진 촬영관, 이력서 작성 컨설팅 등 입사 지원 편의시설 설치로 구직자들의 면접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양시현기자

여행으로 힐링하기... 인천 현대요트(왕산마리나), 더 스파 하스타 추천 웰니스관광지 신규 선정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한 2023년 신규 추천 웰니스관광지로 인천의 '현대요트(왕산마리나)'와 '더스파하스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추천 웰니스 관광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체로부터 우수 웰니스 관광지 및 시설을 추천받아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됐으며 인천의 '더스파 하스타'와 '현대요트' 등 2곳을 포함한 총 9개 소가 최종 선정됐다.

인천시는 이번 선정 결과로 2019년에 선정된 '파라다이스티 씨메르'와 2021년에 선정된 '더스파 파라다이스'를 포함해 4곳의 추천 웰니스관광지를 보유하게 됐다.

인천 영종도 왕산마리나에 위치한 '현대요트'는 요트 이완 명상(요트 니드라), 요트&SUP(발란스 요팅) 등의 웰니스 관광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왕산마리나 내 카페에서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고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웰니스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더스파 하스타'는 쉐라톤인천호텔 6층에 위치해 있으며, 하이드로&스파 프로그램, 지역자원을 활용한 오리엔탈 딸라소 테라피, 디톡스 테라피 등 전문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다.

김종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장은 "전 세계적으로 웰니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인천의 매력적인 웰니스 관광지를 발굴하고 국·내

외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울릉군, 풍요로운 어장조성을 위한 어린전복 방류

울릉군은 4월 1일 풍요로운 수산 자원을 조성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마을어장에 어린 전복 7만3천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전복은 경북 수산자원연구원에서 경북 연안 5개 시·군의 전복자원 조성을 위해 생산한 품종으로 올해는 총 48만여 마리의 어린 전복을 생산·분양했다.

이번 천부와 현포어촌계 마을어장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어린 전복은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각장 3.5cm의 건강한 종자로 전염병 검사와 사전 사후 영향 조사를 마쳤으며, 어촌계 잡수부들이 암초가 많고 해조류가 풍부한 마을어장 내에 안전하게 안착시켜 서식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조성해 방류했다.

전복은 깨끗한 바다의 암초 지역에서 흔히 보이며, 우리 울릉군 해역 특성에 알맞은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복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수요가 많다 보니 자연산 전복은 멸종 위기 수준이고, 울릉도·독도 연안에서도 전복의 개체수는 수온 상승 및 갯녹음 현상(바다 사막화)등으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이번 어린전복 방류는 울릉군 마을어장의 수

산자원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풍요로운 바다 만들기과 다양한 수산자원 조성을 통해 울릉 어업인들의 어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방류가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컸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현중·조강재/기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동래구 사직 팡팡! 플리마켓' 개최

오는 4월 7일 오후 3시~8시 부산아시아드 조각광장에서 플리마켓 개최

부산 동래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동래구 주민들의 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동래구 사직 팡팡! 플리마켓'을 개최한다.

오는 4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내 부산아시아드조각광장에서 펼쳐질 이번 플리마켓은 프로야구 '23시즌 사직야구장 개막과 함께하여 동래구 주민들은 물론 부산 및 전국 야구팬들의 어울림의 장으로 진행되며,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켓존, 체험 행사, 포토존 등으로 구성된다.

40여 팀이 마켓에 참가해 수제품, 공산품, 먹거리 등을 판매하고 토달공예 체험 행사는 참여 대상을 아동

과 성인으로 나누어 연령에 따라 흥미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또한, 인생네컷 포토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홍보관 등이 어우러져 다채롭게 운영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플리마켓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하는 홍보 행사로 사직야구장 프로야구 '23시즌 개막과 장터의 흥겨움이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통해 동래구 지역에서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열기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되고, 많은 주민이 플리마켓에 참여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중진/기자



영덕군, 소규모어가·내국인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에 따른 120만원 직불금 지급

영덕군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점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오는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신청을 영덕군 해양수산과에서 받을 예정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5톤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나잠어업, 맨손어업)을 한 어업인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한 어업인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자중 판매금액 1억미만의 어업인 등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신청일 전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업경영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함께 도입된 어선원직불제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1년(22.1.1.~22.12.31 또는 22.4.1.~23.3.31.) 중 6개월 이상 연근해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직불제만 신청하면 된다.

다만 세대의 구성원중 농업·농촌 기본공익형직불금 및 임업생산물·육림업 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과 어업의 소득이 2천만원이상, 어가내구성원의 어업외 소득이 4천5백만원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호 해양수산과장은 "소규모어

가 및 어선원 직불제의 첫 도입이 사려져가는 어촌 인구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문화/기자



해운대구 '2030EXPO부산 프로포즈 in 해운대' 개막 투어

2030세계박람회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부산 방문에 앞두고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3일 '2030EXPO부산 프로포즈 in 해운대' 개막투어를 개최한다.

해운대구는 실사단 환영과 시민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에 엑스포 정원, 시민 소망가지, 해운대타워, 샌드 전망대, 샌드 데자아트(미로) 등으로 꾸민 '2030EXPO부산 프로포즈 in 해운대'를 조성했다.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주요 시설물을 돌아보며 최종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실사단이 해운대구에서 주요 일정을 수행하는 만큼 실사단이 거닐 수 있는 현장을 돌아보고 마지막까지 만반의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는 구남로 광장에는 '엑스포 해운대 정원'을 조성했다. 에펠탑과 관람차, 기관차 등 역대 엑스포 상징물과 발명품을 본뜬 조형물을 설치했다. 조형물 주변을 꽃으로 만든 터널과 정원으로 꾸미고,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해운대해수욕장에 세운 16m 높이 '해운대 타워' 대형 스크린을 통해 엑스포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BIE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하는 4월 4일부터 7일에는 매일 오후 9시부터 '엑스포 타워쇼'를 펼쳐 방문객 눈길을 끌 전망이다.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는 엑스포 상징물을 주제로 한 모래조각 작품인 '엑스포 샌드 전망대'를 만들었다. 관람객들은 7m 높이의 전망대 위에 올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백사장에 엑스포 엠블럼을 본뜬 가로 20m, 세로 20m 규모의 대형 미로도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구는 5월에 여는 해운대모래축제에 주제를 '2030 미래를 향한 엑스포 모래바다'로 정해 유치 열망을 모래 작품으로 풀어내고, '엑스포 해운대 정원'을 비롯한 일부 설치물은 6월 초까지 계속 설치해 실사단이 돌아간 뒤에도 엑스포 유치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해운대구가 준비한 모든 것을 충분히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실사단의 눈높이에서 완성도 높은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중진/기자



(주)시에스로지스, (주)청우물류 김천일 대표,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 기탁 10년째 이어와~



청송군은 지난 3월 29일 (주)시에스로지스, (주)청우물류 김천일 대표가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를 찾아 장학금 3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청송군 주왕산면이 고향인 김천일 대표는 201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2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이렇게 장학금을 기탁할 고향 청송이 있고 후배들이 있어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며 "우리 청송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인 윤경희 청송군수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동안 변함없이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김천일 대표의 청송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뜻을 우리 청송의 미래를 열어갈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 추진

비점오염저감시설 중점 관리를 통한 하절기 강우 시 비점오염원 하천 유입 최소화 유도

대구시는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3년도 하절기 강우 시 비점오염원 하천 유입 최소화를 위해 총량관리개발사업 대상 삭감계획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시·산지·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원을 말하며, 주로 도시지역 노상의 먼지나 공사장 주변에 쌓여있는 오염물질이 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효과적인 오염총량관리로 낙동강·금호강 유역 목표수질 달성 및 환경기초시설 할당부하량을 준수하는 등 하천수질 개선에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매년 개발사업의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해 비점오염원 하천 유입 차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8개 사업장 대상 삭감계획 점검을 통해 미이행 사업장 1개소에 대해 미흡사항 적발 및 조치(배출부하량 변경)했으며, 올해에는 2022년도 준공된 오염총량관리 개발사업 3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녹지,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여과형시설 등에 대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 기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점검 결과 유지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교육 및 개선토록 조치하여 효과적인 비점오염저감시설 관

리를 유도할 계획이며,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2022.2.) 및 중점세부대책을 수립하여 2031년까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통한 강우 시 오염원의 하천 유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옥훈 대구시 맑은물정책과장은 "우리 시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저감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관련 시설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를 유도해 낙동강 수질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남대천 벚꽃축제 맞이 음악분수 운영

의성군은 2020년 명품 하천으로 재탄생한 고향의 강 '남대천' 음악분수를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대천 벚꽃축제'를 맞이하여 의성군민과 관광객의 휴식 공간인 남대천 산책길과 더불어 음악분수를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며, 공연시간은 4월과 10월은 2회(오후 3시, 오후 7시 50분), 5월에서 9월은 3회(오후 12시 30분, 오후 3시, 오후 8시) 40분간 운영할 계획이며, '남대천 벚꽃축제' 기간중에는 하루 5회로 증가 운영할 예정이다.

음악은 가요, 트로트, 클래식, 팝송

등 40여 곡으로 편성되어, 야간에는 컬러레이저 불빛과 함께 리듬감 있고, 다양한 물줄기 연출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남대천' 고향의 강은 지역의 명물이자, 남대천을 산책하는 의성군민의 힐링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그동안 코로나로 지쳐있는 군민들에게 마스크 해제와 함께 '남대천 벚꽃축제' 맞이하여 재운영한 남대천 음악분수가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산수유꽃 활짝 핀 봉화 두동마을서 열린 산수유 신춘 시 낭송회 '성료'

2023년 산수유 신춘 시 낭송회가 지난 1일 봉성면 동양리 두동마을(띠띠마을)에서 열렸다.

한국문인협회 봉화지부와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에서 주관하고 봉화군, 경상북도에서 후원하는 '산수유 신춘 시 낭송회'는 매년 4월 첫째 주 토요일 두동마을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봉화군의 새봄맞이 지역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시 낭송회는 '시와 음악과 불꽃 향기'라는 주제로 한국문인협회 봉화지부 회원, 마을주민, 관람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봄기운을 가득 머금은 노란 산수유꽃을 구경하고, 시 낭송과 음악공연을 즐겼다.

특히 이날은 플루트·바이올린 합주, 국악, 성악 등 음악과 한국문인협회 봉화지부 회원, 초대 작가의 시 낭송이 어우러져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여유를 느끼게 해주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외에도 마을 담벼락에는 회원들



의 시가 전시돼 있어 행사가 끝난 후에도 마을 길을 따라 시를 감상하며 봄의 운치를 만끽할 수 있었다.

행사에 방문한 한 주민은 "마을이 노란 산수유꽃으로 물든 것을 보니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했다."며 "꽃과 시와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봄의 향취를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주를 부탁해’...31일, ‘지방소멸 대응전략’ 심포지엄 개최

황명진 한국인구학회 부회장 주제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



영주시는 31일 오후 4시 시청 강당에서 ‘지방소멸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자연감소와 지속적인 인구 외부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국인구학회 부회장이며 지역 출신 고려대학교 황명진 교수가 △지방소멸의 원인 진단 △국내외 인구소멸 극복사례 △트렌드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정영환 법학대학원 교수, 김탁 의과대학 교수, 김명근 의과대학 교수, 제상영 경제학과 교수, 조민호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안남일 문화컨텐츠학과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패널로 참가해 ‘영주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시대 변화로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위계 이전 및 두 지역살기 전략 추진, 영주시만의 특화된 브랜드 이미지 확

보방안, 청년세대 맞춤형 정주여건 조성 및 컨텐츠 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지방소멸 대응 주제들이 논의됐다.

송호준 영주시부시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청년들이 떠나면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더해가고 있는 이때 오늘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나온 제언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그 활력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영주시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한 성공적 모델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월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을 수립에 착수했다.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을 통해 추진방향과 목표 등을 수립해 인구유입과 인구유출 방지에 주력하면서 생활(관계)인구 늘리기와 인구활력 제고, 정주 여건 개선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성과 입증, 농가에 ‘큰 힘’

지난 10년 간 보험료 2494억원 내고 1조 3388억원 받아

경북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간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경북도 50만3084호가 2494억원의 농가부담 보험료(가입 보험료의 5~15%)를 내고 재해보험에 가입해 태풍, 우박 등 각종 자연재해로 24만9421농가가 1조 338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실적은 2013년 농가수 2만 2866호, 면적 1만8557ha, 농가 보험료 216억원, 가입률 11.5%에서 2022년에는 농가수 8만8047호, 면적 8만858ha, 보험료 346억원, 가입률 41.8%로 2013년 대비 농가수 6만 5181호(3.9배), 면적 6만2301ha(4.4배), 보험료 130억원(1.6배), 가입률 30.3% (3.6배)가 각각 증가했다.

수해실적에서는 2019년 5만9741호가 농가부담 보험료 149억원을 내

고 가입 보험료 대비 12.9배에 이르는 1914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가장 높은 수혜율을 나타냈고, 2020년 10.7배, 2017년 6.2배, 2021년 5.5배로, 지난 10년간 평균 5.4배의 수혜율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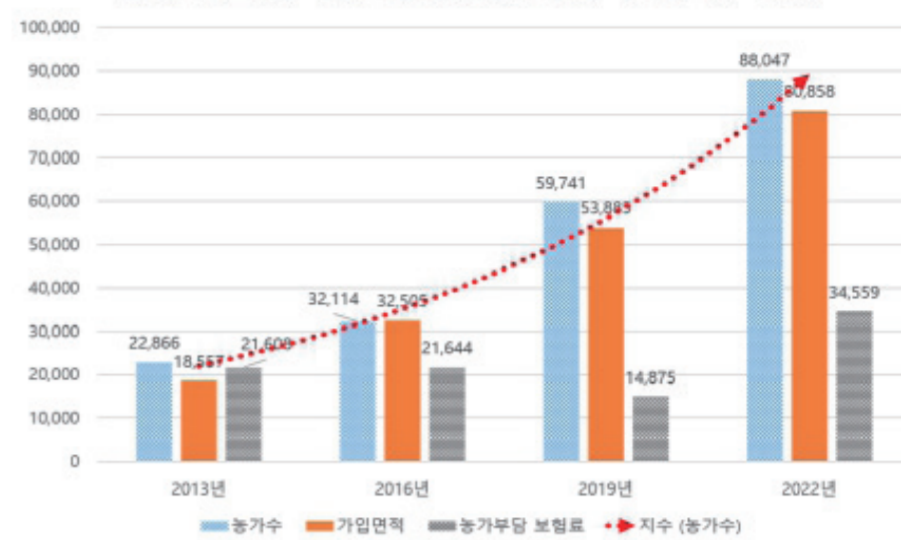
경북도는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첫해인 2001년부터 전국 최초로 가입 보험료 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추경예산 952억원(도비 84억원)을 확보해 당초예산 포함 전국 최대인 299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농가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품목은 2001년 2개 품목(사과·배)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 52개 품목(전국 70개)이 판매되고 있다.

가입기간은 품목별로 재배시기에 맞춰 별도로 운영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품목별 가입 일정에 따라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경상북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추이(‘13~’22)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이와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

해로 농가의 실질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많은 농가의 관심을 당부 드리고, 경북도에서도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영양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4월 3일 영양군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영양군 청기면 출신인 남창진 부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서울시교육청 연계선진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남창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고향 영양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영양군 고향사랑기부금에 전국에 계신 향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예천군,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시상...민원 불편 최소화



예천군은 3일 오전 8시 20분 군청 대강당에서 신속한 업무 처리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3명을 시상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2일 이상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신속한 행정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기간을 단축한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사기진작 및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제도다.

마일리지 제도 운영 결과 민원처리

기간을 57% 단축했으며 올해 1분기에 실시한 평가에서는 △축산과 김경현 주무관 △새마을경제과 이경민 주무관 △건축과 추교명 주무관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군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친절한 서비스와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군민 중심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협약 체결

경북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새로운 모델 제시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31일 상주시청에서 상주시와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과 상주시는 지난 2020년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학교와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체결하는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은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바탕 위에서 △상주청소년문화센터를 증·개축해 미래교육 종합지원센터로 조성·운영하는 사업과 △읍면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통학버스 통합 운영 사업 등의 내

용이 포함됐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상주지역 학생들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방과후 활동,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진로진학 활동, 학교교육과정 지역 연계 활동 등)과 동아리 활동, 학생자치활동 등의 자유 활동과 더불어 학생 센터의 역할을 할 미래교육 종합지원센터(3in1 스테이션)에서 자신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또한 기존 학교 통학버스에 추가 지원되는 ‘온마을 아이들 스쿨버스’ 사업을 통해 읍면지역에 생활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통합 운영되는 버스는 학생 등하교 지원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 학생들의 다양한 지역 연

계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지난 2022년 5개 지구(상주, 경주, 안동, 의성, 예천)에서 2023년 3개 지구(문경, 예천, 칠곡)를 추가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운영해 나감으로써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책임교육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북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상주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교육적인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상주가 더욱 교육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천시, 2023년 귀농인 창업기반조성사업 안내

영천시는 귀농 초기 필요한 실질적 영농기반조성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는 귀농인 창업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귀농인 창업기반조성사업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영농경력이 짧아 보조사업 선정이 어려운 귀농인들을 위해 초기 영농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5000만원(50% 자부담 포함)으로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벚꽃재배사 등 기타 소득기반 영농시설 및 장비·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초교육을 수료한 영천시 귀농인으로, 귀농신고한

지 5년 이내이거나 전업 주소가 영천시 관내 동지역으로 귀농신고하지 못한 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업무 담당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추후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귀농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인 만큼 귀농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으로 문의하거나, 영천시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반식/기자

경주시, 고향사랑기부금 감사 이벤트 '눈길'

1000번째 마다 기부금 10만원 이상 기탁자 대상으로 인기 숙박권 지급



경주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부감사 이벤트를 펼친다.

이벤트는 천년고도 경주의 의미를 담아 1000번째 기부자를 시작으로 1000번째 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상 기탁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지역 인기 숙박권을 지급한다.

3월 31일 기준 경주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총 977건, 1억3569만원으로 집계돼 이번 주 내 첫 번째 당첨자가 나올 전망이다.

당첨자는 개별 통보와 함께 경품을 배송한다.

시는 이번 경품 이벤트를 통해 이미

기부를 하신 분께는 감사의 의미, 예비 기부자에게는 관심도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경주를 응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고향사랑기부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윤태용/기자

달성, 봄의 여왕 튜립으로 손님맞이

송해공원, 사문진주막촌 튜립 등 봄꽃 10만 본 개화

달성군의 송해공원과 사문진주막촌에서 봄꽃의 여왕인 튜립이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방문객을 맞이한다.

군은 옥연지 송해공원과 사문진주막촌 등 주요 관광지외 가로변에 튜립, 꽃양귀비, 루피너스 등 10여만 본의 봄꽃을 심어 상춘객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가을 미리 심어놓은 튜립 알뿌리 6만여 개가 봄이 되어 손님맞이를 시작 했다. 송해공원은 옥연지의 푸른 물결을 배경으로 연분홍의 튜립과 튜립의 화려한 색깔이 한데 모여 한눈에 3경을 즐길 수 있는 명소이다.

봄꽃 식재를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자체 양묘장에서 직접 재배한 루피너스, 델피늄 등을 활용하고 달성군농업기술센터와 수목원 생산묘를 분양 받아 사용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했다



최재훈 군수는 "26만 달성군민과 방문객의 마음에도 꽃이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 와서 맘껏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대만관광객, 경북의봄 빛꽃 축제에 반하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선정 '경주벚꽃마라톤대회' 150여명 참가

경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봄과 꽃을 좋아하는 대만관광객을 상대로 1일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경주 벚꽃마라톤대회를 집중 홍보해 특별한 추억과 함께 경북관광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되는 경주벚꽃마라톤은 국내·외 참가자 및 가족들에게 벚꽃뿐만 아니라 청성대 인근 톨립과 황남 고분군을 노랑게 물들인 유채꽃 등 봄꽃의 향연을 펼침으로써 다시 만나는 경주의 봄을 알렸다.

이날 도와 공사는 이번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대만 가족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테마의 경북 홍보물 및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환영 행사를 가졌으며, 여행업 관계자들과 스포츠, 레저, 기업 인센티브 등 특수목적관광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마케팅이 어려운 상황에도 도와 공사는 대만 현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개별관광객 대상 마케팅과 더불어 홍보사무소 운영을 통한 홍보설명회, SNS기자단 운영, 대만 대표 예능프로그램 '종예완한대' 촬영 유치 등 다각적으로 펼쳐왔던 마케팅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대구공항으로 입국하는 대만 전세기 관광상품으로 경주를 선택했으며, 스포츠 연계 특수목적상



한 홍보설명회, SNS기자단 운영, 대만 대표 예능프로그램 '종예완한대' 촬영 유치 등 다각적으로 펼쳐왔던 마케팅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대구공항으로 입국하는 대만 전세기 관광상품으로 경주를 선택했으며, 스포츠 연계 특수목적상

품 홍보를 통해 경주벚꽃마라톤대회 판촉 및 대만 가오슝에서 부산으로 입국하는 항공노선을 이용하는 여행 상품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대만은 올해 2월까지 두 번째로 많은 방한객들이 찾아왔고 특히, 내년

까지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로 사전 허가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며, "차별화된 판촉 전략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실질적 외래 관광객 유치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4년만의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영주의 봄을 달렸다

플코스 남자부 이병도, 여자부 이정숙 각각 우승

전국 10대 메이저 대회인 '2023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가 4년 만에 재개돼 2일 성황리에 열렸다.

2003년 시작돼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영주시와 매일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영주시체육회가 주관해 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코스인 영주시까지, 순흥·단산면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플코스 343명, 하프코스 727명, 10km코스 1639명, 5km코스 4832명 등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7천541명의 선수들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 선수들은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소백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소수서원, 선비촌 등 유서 깊은 문화유산 주변을 달리며 마음껏 기량을 펼쳤다. 마라톤 주로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박수와 환호로 반겼다.

이번 대회 플코스에서는 이병도(38·아디다스러너스) 씨가 2시간 37분 35초로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고, 김용범(개인·2시간 44분 56초) 씨가

2위, 이용근(개인·2시간 50분 35초) 씨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여자부는 이정숙(58·천안마라톤클럽·3시간 14분 18초) 씨가 우승했고, 2위는 신민아(삼척육상연맹·3시간 25분 03초) 씨, 3위는 박정희(개인·3시간 43분 17초) 씨가 각각 차지했다.

하프코스는 김지섭(개인·1시간 39분 44초) 씨가 남자부 우승을, 황정미(74범띠마라톤클럽·1시간 29분 44초) 씨가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10km 코스는 영주가 고향인 김희목((50·수원사랑마라톤클럽) 씨가 남자부 우승을, 강경아(44) 씨가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시 일원은 화창하면서도 포근한 날씨로 만개한 벚꽃과 다양한 봄꽃의 향기를 따라 1만여 명의 참여자들이 뜨거워 열정의 축제를 연출했다.

시는 올해 플코스·하프코스 완주자를 대상으로 메달 각인 서비스 및 현장에서 화면을 송출해 자신의 마라톤 완주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며 응원객들도 더욱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대회는 푸짐한 먹거리로 참가자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시는 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전면에 특산물 먹거리 장터를 마련해 영주 한우불고기, 한돈 불고기, 잔치국수, 사과, 고구마빵 등을 전국의 마라톤러들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했다.

한편 시는 이날 다수가 물리는 위험에 대비해 행사장 내 운영본부 및 의무실 등을 설치 운영해 행사장 내 안전사고에 대비했고 행사장 구역별 안전요원을 배치, 마라톤 코스 전면 차량 통제, 주차장 교통관리 등 안전관

리에 철저를 기했다.

또, 5km코스 출발 전 진행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영주 유치 퍼포먼스'에도 많은 시민들과 참가자들의 관심과 성원이 이어졌다.

영주시 관계자는 "오늘 전국의 마라톤러들이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소백산과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따라 마음껏 달렸다"며 "내년에도 건강과 함께 영주의 문화적 특성과 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대회로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구미 전체가 들썩였다'...제15회 고아웃 캠핑!

세계 최초 돔 텐트 100동 설치, 장관 이취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국내최대 아웃도어 캠핑축제 '고아웃캠프'를 3.31.(금) ~ 4.2.(일)까지 2박 3일 동안 낙동강체육공원에서 개최했다.

경상도권 최초이자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한 15회 고아웃캠프는 유료티켓을 구매한 1만명의 캠퍼와 관람티켓을 제공받은 시민 5천여명이 참여해 캠핑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2박3일간 캠핑과 함께 '요가', '쿠킹클래스', '모터바이크', '자동차 드라이브', '열기구', '카약 및 카누시승' 등의 체험이 이뤄졌고 노래자랑, 아티스트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개최됐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100여개의 돔 텐트는 참가자와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풀깎, 다이내믹 듀오 등이 함께한 콘서트는 안전사고 없이 젊음의 열기로 들썩였다.

축제기간 구미를 찾은 1만여명의 캠퍼들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 파머스마켓과 플리마켓을 운영했으며 새마을중앙시장 왕복 셔틀버스 운행, 영수증 합산이벤트, 배달 어플을 통한 구미 맛집 검색 등 외지 참가자들의 지역 소비로 이어졌다.

캠핑에 참가한 한 시민은 "낙동강변에 위치한 친환경 캠핑 시설에 놀랐으며 다시 또 구미에 오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취우 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캠핑축제를 통해 520만 캠핑인구들에게 캠핑 명소 구미가 각인되고, 낙동강권역에 친환경 캠핑장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캠핑축제를 통해 520만 캠핑인구들에게 캠핑 명소 구미가 각인되고, 낙동강권역에 친환경 캠핑장



추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전국캠퍼들이 즐겨찾는 낙동강권 최대의 캠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7개월 대장정 돌입

김영록 지사, 남해안해양관광벨트 육성·노관규 시장, 미래도시 표준 강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31일 봄꽃이 만발한 순천 동천 '물 위의 정원' 수상 특별무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리며 7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개막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중앙부처 장·차관, 여야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노관규 순천시장의 개회 선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환영사,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등에 이어 개막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노관규 시장은 개회 선언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 힘을 다해준 순천시민과 직원에게 감사하다"며 "정원은 그 시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총체인 만큼, 이번 박람회로 미래 도시의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상상 초월 오감 만족의 매력을 선보이게 될 세계 최고의 정원 도시 전남 순천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순천만 국가정원과 유네스코 자연유산 갯벌정원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남해안 해양관광벨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순천은 도시 전체를 생태도시, 정원도시로 만들어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였다"며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의 성장동력을 찾아 키우고, 중앙정부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1일 전남 순천시 동천에 마련된 수상 특별무대에서 열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방균형발전 철학과 일치하는 도시"라고 평가했다.

이어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며,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호남이 잘 되는 것"이라며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순천만국가정

원, 순천만습지, 순천 도심에서 펼쳐진다.

800만 관람객 달성을 목표로, 일본과 네덜란드, 스페인 등 14개국 17개 도시가 참가해 각국의 다양한 정원 문화를 선보이고, 국내 첫 도로정원인 그린 아일랜드와 저지지를 푸른 잔디공원으로 탈바꿈한 오천 그린광장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정원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선사할 가든 스테이, 맨발로 자연의 숨결을 느끼는 어싱길 및 국가정원

갯길을 오가는 정원드림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정원박람회장 내 가든스테이에서 전남지역 기업인, 청년 등 도민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지방하천 물관리 중요성 등 전남도민들의 건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김병수/기자

진도군-필리핀 산마테오시,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진도군이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필리핀 리잘주 산마테오시와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난 3월말 우흥섭 진도군 부군수가 필리핀 현지를 방문, 리잘주 산마테오시 혼 바르톨로메 엔 리베라 시장 등 상호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필리핀 리잘주 산마테오시는 도입 조건에 적합한 우수 인력 선발과 적응 훈련 등을 지원하고, 진도군은 선발된 필리핀 인력을 농어가에 배치해 농어촌 내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진도군은 작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농업분야 134명, 어업분야 143명 총 277명의 외국인 계절근

로자를 배정 받았다. 군은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어 파종·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매년 반복되는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돼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리핀 리잘주 산마테오시와 경제, 문화 등 상호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 더 많은 계절근로자가 고용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진도군에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고용주와 계절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등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윤경호/기자

화순군, 2023년 보급종 공급가격의 일부 차액지원 확정 안내

화순군은 2023년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으로 벼와 콩 보급종에 대한 차액지원 단가를 확정 안내했다.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정부보급종을 신청·공급하는 농가(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정부 보급종의 매입가격과 농가 공급가격의 차액을 일부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여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2023년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9천5백2십만 원을 확보하여 정부 보급종을 신청·공급받는 화순 관내 농가(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벼는 20kg 1포대당 1만원, 콩은 5kg 1포대당 4천 원의 차액을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반농가가 지역농협을 통해 2022년산 보급종을 공급받았을 경우, 매벼 기준 20kg 1포대당 공급가격 44,880원에서 차액지원 10,000

원을 차감한 금액인 38,880원에 공급받게 되며, 일반콩 기준 5kg 1포대당 공급가격 27,800원에서 차액지원 4,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23,800원에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농가의 경영비 부담 절감과 함께 순도 높은 우량종자의 농가 공급 확대도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과 식량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로,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일반농가의 보급종 기관 신청분에 대하여 농가공급 및 종자대금 처리 협조 기관인 지역농협이 농업기술센터로 버는 5월 31일까지, 콩은 6월 30까지 일괄 신청(청구)하면 되고, 그 외 보급종 우선 신청·공급업체와 일부 개별농가도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청구)할 수 있다.

윤경호/기자

보성군 벚꽃엔딩! 제10회 보성벚꽃축제 성료

보성군은 지난 1일 군립 백민 미술관 광장에서 열린 '제10회 보성벚꽃축제'와 '제19회 문덕면민의 날'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문덕면민회 주최로 열린 이번 축제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문덕면민회 출향 향우를 포함해, 1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았다.

이날 주요 행사는 농악을 시작으로 연교, 민요공연 등의 식전 공연과 보성군립국악단의 특별공연, 문덕면민 노래자랑, 대중 가수 초청공연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는 시화전 및 사진 전시회, 향토음식점, 지역 특산물 판매점 운영대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

응을 얻었다. 조연옥 면민회장은 "이번 축제를 아무런 사고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내년에도 더욱 풍성한 축제를 마련해 면민 화합을 도모하고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낭만을 선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문덕면 대원사 진입로는 양벚꽃나무 4천여 그루가 길이 5.5km 양쪽으로 울창한 숲을 이루면서 '양벚나무터널'을 형성한다. 환상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점이 높게 평가돼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됐다.

박재원/기자

남원시 신규농업인 교육, 관내 우수농가 현장 견학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2023년도 신규농업인 기초농기술교육 1기 교육생 35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31일 남원 지역 우수 사례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농업인들에게 특화작목분야의 기초 영농에 이해를 돕고자 마련했으며, 송동면 두름 재배농가(박해근 대표)와 보절면 미꾸리 양식장을 방문해 선진 농법을 배우고, 농가만의 특별한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관외 농업인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 남원시로 방문하여 교육생들과 함께 교육 받았으며, 전국적으로 남원시와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는 작목에 대해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인배는 "앞으로도 많은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더욱더 효율적이고, 시각화된 교육을 통해 신규농업인들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장 이틀 만에 25만 명 돌파! 대박 났다

확 바뀐 2023정원박람회, 인기몰이 콘텐츠 필까?

전주시 '생태교통수단' 자전거 축제 열린다!

자전거 타기 좋은 봄철을 맞아 전주 시민들의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22일 '자전거의 날'을 기념해 치명자산상성지 평화의전당 앞 잔디마당(완산구 바람쐐는길 120)에서 '2023 자전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자전거 페스티벌은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목표로 '자전거 페스티벌 기념식'과 '자전거 행진'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이 이번 자전거 페스티벌에서 참석한 시민들은 한벽루 아래 터널에서 시작해 승암마을을 거쳐 원색마을에 이르는 바람쐐는길 왕복 3.4km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함께 달리게 된다.

또한 자전거행진과 더불어 사전 접수된 아트라이딩 작품 전시 및 우수작 선정, 스핀바이크 기록 경주 등의 이벤트가 펼쳐지고, 자전거 수리센터와 페스티벌에서 찍은 사진을 현장에서 인화하는 부스도 운영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자전거 페스티벌에 참여할 시민들을 사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나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신청하면 되며, 아트라이딩의 경우 오는 19일까지 전주시가 포함된 GPS 주행경로 표시 화면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전거 페스티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섭 전주시 대중교통과장은 "평소 자전거를 접하기 힘든 사람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을 준비해 자전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자전거에 대한 즐거운 경험이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장이틀 만에 관람객 25만 명을 돌파하며(1일 150,024명, 2일 101,137명 / 18시 기준) 그야말로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순천시는 이번 박람회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도시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10년 전 2013정원박람회 개장 2일간 입장객 수 8천 5백 여 명(1일차 31,553명, 2일차 54,267명)의 약 3배 정도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 확 바뀐 2023정원박람회, 인기몰이 콘텐츠 필까?

2일 첫 운행을 개시한 '정원드림호'는 3대의 배가 각 13차례 운행되며 총 356명이 탑승, 성공적인 출항 소식을 전했다.

60만 평의 정원에서 하루 머무는 '가든스테이 순천, 설랑계'는 1, 2일 전 객석이 매진됐으며 4월 한 달 예약률은 85%에 이른다. 가든스테이 체험객은 "밤낮으로 아름다운 정원 뷰를 보여주는 설랑계의 모습에 감동", "신선한 재료로 만든 수준 높은 만찬까지, 대접받는 기분 물씬" 등 긍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국가정원식물원과 시크릿가든 역시 이번 박람회로 첫선을 보인 만큼 1일, 8천 5백여 명이 방문했으며 2일차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인기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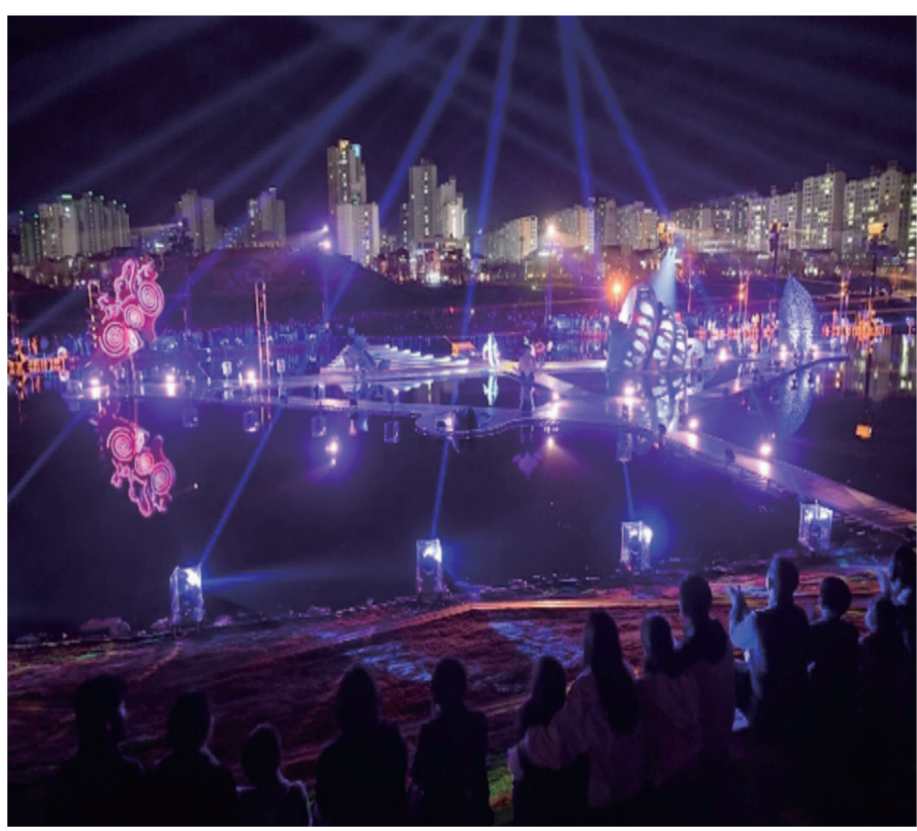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도심권역의 광활한 정원도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로 이어진 푸른 사계절 잔디광장은 모든 사람이 맘껏 뛰놀고 힐링하기에 충분했다.

그 주변의 26ha(여의도의 1.2배) 면적의 풍덕들 경관정원은 톨립 150만 본과 봄꽃 53만 본으로 구성돼 도심 속 꽃의 향기로 가득 채워 도시가 정원이 되는 순천에 특화된 볼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그 밖에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방문한 가족들에게는 국가정원 물레놀이 터 인근 어린이 동물원에 자리한 새, 알파카 등에게 먹이 주는 체험 또한 큰 인기를 끌었다.

순천이 보여주는 미래형 도시 모델 어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며 개장 직후부터 박람회장은 구름인파로 북적였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 정원과 어우러지는 문화행사, 오감을 만족시키는 2023정원박람회 재해설로만 쓰이던 저류지가 5만



평의 사계절 잔디광장이 된 '오천그린광장'은 주제공연이 펼쳐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8시, '순천만습지를 지키는 어벤져스'라는 주제로 '카이로스'라는 상상 공연이 시작된다. 흑두루미, 왜가리, 지뚱이 등을 형상화한 캐릭터들은 순천만습지 수호자로 등장해 생태를 지키는 순천의 스토리를 담아냈다.

이 외에도 국가정원 호수정원, 키즈가든에서는 다양한 거리 퍼포먼스로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았다. 꽃이 만발한 정원을 음악으로 재운 버스킹 공연과 마임, 매직쇼 등 문화공연으로 정원을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게 했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 관계자는 "박람회 기간 내내 풍성한 문화행사를 채워내 오감을 만족시키는 박람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 지역 상권 웃음꽃 만발, 첫 날 박람회 매출액만 5억 넘어 관람객들은 "완전히 바뀐 정원을 직접 보니 놀란다", "국제정원박람회로서 손색이 없다. 많은 분들이 순천에 힐링하셨으면 좋겠다", "곳곳에 포토존이 넘쳐난다" 등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국에서 물리는 인파 속에 순천의 상권까지 활성화되며 2023정원박람

회는 지역 경제를 이끄는 힘을 발산하고 있다.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야간경관 역시 관람객을 끌어모으는 콘텐츠로 체류형 관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숙박시설, 음식점, 카페, 택시 등 종사자들은 웃음꽃이 만발하며 박람회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오천동 식당 운영자는 "넘치는 관람객으로 인근 상권이 북적북적해졌다. 코로나19로 한동안 힘들었는데 정원박람회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다들 기분 좋게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직위는 박람회 개장 첫날에만 입장권, 식당, 기념품점, 관람차 등 총 매출 약 5억 4천만 원을 달성하며 수익사업에도 순항하고 있음을 밝혔다. 앞으로 정원드림호 운항 매출까지 더해지면 매출은 더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순천에서 열리지만 여수, 광양 등 인접 도시까지도 낙수효과를 누렸으면 한다. 순천은 이를 계기로 수도권 일극체제가 낳는 모든 부작용을 해결할 남해안벨트 허브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일상에 지쳤던 국민여러분! 이제는 순천으로 오셔서 힐링하시고 재충전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병수/기자

2023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내용

- 여의도인물 전시
- 자전거 주파 만들기, 음향 연타 부스
- 시민참여 기록 경주
- 자전거 페스티벌 기념식
- 자전거 수리 센터
- 자전거 페스티벌 기념식
- 자전거 페스티벌 기념식
- 자전거 페스티벌 기념식

문의처

- 순천시 대중교통과 (063-281-2568)
- 카카오톡 ID: hanokfairy

전북도, 2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예산 1조 5,904억 원 신청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6대 전략 중점분야 추진체계 확립

전북도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로의 도약을 위해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총 200개 사업, 1조 5,904억 원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36억 원, 3.5%가 증가된 규모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수요 신청은 국정과제 이행과 미래농정수요 대응 등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반영에 필요한 분야를 중점 검토·발굴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 사업이다.

이번 사업 예산은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6대 전략 추진 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춰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 등을 위해 경영실습 농장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및 청년 보급자리 조성, 판로확대를 위한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등 16개 사업에 1,059억 원을 신청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 활성화 등 28개 사업에 1,109억 원을 신청했다.

아울러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스마트종자 R&D, 동물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등 13개 사업에 930억 원을 신청함으로써 그린바이오 핵심인프라 구축과 농생명 신산업 육성 및 기반 확장에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위기대응 지속가능 농업 구조 전환을 위한 시설원예(스마트팜) 확대, 맞춤형 농지 지원, 가축분뇨 처리 지원 등 82개 사업에 4,048억 원, ▲농촌고용인력 및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 등 41개 사업에 7,760억 원, ▲농촌융복합 네트워크 조성, 농촌축제 및 유학 지원 등 20개 사업에 998억 원을 신청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식품기업 매출액 7조원 달성, 농

가소득 6천만 원 진입이라는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과 예산을 제출했다"며, "농생명 산업의 혁신성장 과 농민행복 실현을 위한 예산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군산시, 파스한 봄날 햇살 같이 꾸며지는 무대

군산예술의전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로맨틱 파트너스 콘서트'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예술의전당은 오는 28일 최고의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 옥주현, 성악과 크로스오버를 넘나드는 길병민의 앙상블로 꾸며지는 '로맨틱 파트너스 콘서트'를 오후 7시 30분 공연한다고 밝혔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선호하는 뮤지컬 장르에서 독보적인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옥주현과 부드러운 음색으로 최근 인기리에 방영됐던 미스터롯2에서 활약했던 길병민이 군산시민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우리 귀에 친숙한 뮤지컬 넘버와 영화음악 OST 등 파스한 봄날과 어울릴 곡들로 준비해 군산의 봄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런현 군산예술의전당 관리과장은 "관객선호도 조사 시 상위권을 차지하는 뮤지컬과 콘서트를 한번에 느낄 수 있는 갈라 콘서트 무대를 마련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개관 10주년에 걸맞은 맞춤형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완도군, 식목일 앞두고 '나무 심기·나눔 행사' 개최

해안 방재림에 황칠나무, 완도호랑가시나무 1,500주 식재

완도군은 지난 30일 완도호 제방길 일원에서 '제78회 식목일 나무 심기'와 해조류센터 광장에서 '나무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신우철 완도군수, 이경동 산림조합장, 완도군청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1.6km 제방길 언덕에 해안 방재림을 조성하고자 지역 대표 난대 수종인 황칠나무와 완도호랑가시나무 1,500주를 식재했다.

해안 방재림이란 바다에서 발생하는 모래 날림, 해일, 풍랑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해안과 연결된 지역에 조성된 숲을 말하며, 방풍 기능, 모래 날림 방지 기능, 어류 증식 기능과 해안 지역의 경관 조성 및 휴양 기능이 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해조류센터 광장에서 '나무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나무 사랑 나눔 행사'는 시작 시각 30분 전부터 대기자가 줄을 섰으며, 시작 40분 만에 황칠, 완도호랑가시, 애기동백 나무 2,000주 모두 소진되어 군민의 나무 사랑 마음을 가늠할 수 있었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고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에 정성을 다해 심고 가꾸는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산발 방지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군은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96ha에 완도호랑가시, 황칠, 편백 등 8만 4천 본을 식재할 예정이다.

특히 황칠나무는 '완도 황칠 지리'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군은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96ha에 완도호랑가시, 황칠, 편백 등 8만 4천 본을 식재할 예정이다.

적 표시' 증명 표장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그 우수성과 특수성이 증명됐으며, 식용·약용 자원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군은 이를 활용한 황칠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영욱/기자

"음악과 함께 펼쳐진 영암 속 마한"

하춘화, 정인, 하림 출연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기원 음악회 개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설립의 열망이 음악과 함께 영암에 펼쳐졌다. 31일 저녁 왕인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왕인박사유적지 주무대에서는 영암군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를 기원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지난 17일 전남도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의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민과 함께 본격 유치 활동에 돌입한 영암군은 이번 왕인문화축제에 맞춰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며 강한 유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축제 첫 날인 어제(30일) 열린 범군민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늘 저녁 음악회에서는 영암 출신 대표 가수 하춘화와 한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하림, 개성 짙은 음색의 가수 정인이 출연한 가운데 전 참석자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센터 유치에 대한 열망을 함께 했다.

이날 음악회에 함께 한 관객들은 빛

꽃이 만발한 무대 앞을 가득 메우고 출연자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아름다운 옛 마한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겼다.

축제장을 찾은 한 관객은 "왕인박사가 일본에 가기 전에 마한인들이 이미 일본에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어 K컬처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며, "이번 기회로 '잊혀진 왕국'으로 불리던 마한을 좀 더 알게 되고, 옛 마한 땅에서 열리는 왕인문화축제도 관람하게 되어 뜻 깊다"는 소감을 밝혔다.

영암군 관계자는 "진한, 변한에 비해서도 그 역량이 컸던 마한을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한역사문화센터의 영암 유치에 뜻을 모아주고 있어 무척 고무적이다. 센터 유치를 통해 문화 향유 기회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마한 역사 연구 최적의 장소로 가꾸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대한독립만세" 무주군민 모았다! 4.1무주만세운동 제104주년 기념행사 열려

4.1무주만세운동 제104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일 무주반딧불시장 원형광장에서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4.1무주만세운동은 1919년 3.1 운동에 대한 무주만세운동과 정산면 여울교회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민족의식 교육을 이 나라를 구한 힘이었던 화합, 평화 등의 3.1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4.1무주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4월 1일 무주군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오광석 부의장을 비롯한 주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독립선언서 낭독',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3·1절 노래 제창'과 '만세 삼창'을 함께 했다.

황인홍 군수는 "4.1무주만세운동은 3,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맞서 피 흘린 심정으로 항거 한 것"이라며 "이 자리가 무주의 자랑스러

운 역사를 기억하고 4.1무주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104년 전 전일본 선생이 이끌었던 무주만세운동과 정산면 여울교회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민족의식 교육이 이 나라를 구한 힘이었던 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주보다 살기 좋고 발전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함성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가능케 해 태권도 성지, 관광매력도시로서의 명성을 쌓고 더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행복공동체 무주 실현을 가능케 해주기를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지금도 무주를 지남공원 내에는 4.1무주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전일본 선생(1896~1950)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당시 전일본 선생이 '삼승학교' 간판을 걸고 무주와 진안, 장수지역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던 여울교회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정우/기자

해남군,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정비사업 기관·단체'맞손'

해남교육지원청, 호남고고학회, 남도민속학회, 호남사학회 등 업무 협약

해남군이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 군민의 의지와 열망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31일 열린 협약식에는 해남군을 비롯해 해남교육지원청, 호남고고학회, 남도민속학회, 호남사학회 등 5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해남 마한역사문화자원을 포함한 역사문화유산 복원 및 연구 및 가치 창출을 위한 학술공유 기반 마련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차진 해남군 부군수와 조영천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건수 호남고고학회장, 송한용 호남사학회장, 박종오 남도민속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차진 부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남 마한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적 기반 마련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에 참여한 기관단체뿐 아니라 군민 추진단 등 전 군민의 의지를 모아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1년 시행된 '역사문화권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공모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마한역사문화권 주요유적의 발굴기록물,

보존유적, 비지정 문화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연구·전시·활용하는 거점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해남군은 마한 전시대(BC.2~AD.6)에 걸쳐 고고자료·문헌기록·민속자료를 보유한 유일지역으로 대한민국(韓)의 원류이라는 점에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입지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마한역사복원 전담팀을 구성해 역사문화권 정책사업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으며,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과 문화재시·발굴조사, 문헌 고증 및 마한민속 발굴, 디지털·영상기록화, 연구논문 및 발굴기록물 집성, 민관학 협력체 계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각계 전문가와 군민 대표로 구성된 군민추진단을 발족하고, 군민들의 공감대를 모아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교통적 제약으로 그동안 역사문화시설이 전무했다"며 "마한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힘써 마한문화권의 균형잡힌 공동 발전과 국민들께 균등한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애/기자

김제시, '달콤한 봄밤의 정취' 꽃빛드리축제 성료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완성한 축제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 얻어

김제시가 지난 3월 31일부터 3일간 김제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한 "2023 김제꽃빛드리축제"가 아름다운 빛꽃과 화려한 야간경관을 주제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 이후 봄을 맞아 처음 개최된 이번 축제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관광객들에게는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빛꽃 명소 주목받고 있는 시민운동장 일원을 중심으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만개한 빛꽃의 화려함을 더하고 청년플리마켓, 먹거리장터, EDM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봄나들이에 나선 시민과 관광객들이 봄의 정취를 한껏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유)국만경, 크레용팝협동조합 등 지역 민간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청년층과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로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으며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좋은 사례로 평가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꽃빛드리축



제가 봄을 맞아 시민들께 일상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꽃빛드리축제를 즐기기 위해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

로 전국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즐겁고 신선한 봄 축제에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안동시, 영농폐기물·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단속

안동시는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인접지에서의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습적으로 해오던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농민들이 일부 있으나 사실은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으며 이로 인한 벌레가 많이 죽어 농사에 더 불리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며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 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농정과·자원순환과·산림과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연초부터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법소각 1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566만 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불법소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단속·계도 및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농정과에서는 작년부터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수거가 쉽도록 농업용 폐자재 수거 용기를 제작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등 불법소각 행위 방지를 위하여 애쓰고 있다.

정광석 농정과장은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에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전북도,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위한 수산물 원산지 단속

4월 3일부터 14일까지 횡집으로 등록된 업소 표본 점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막아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되며, 도내 일반음식점 업태가 횡집으로 등록된 업소 374개소 중 대형음식점 위주로 15% 정도를 표본 점검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기준 및 규격 위반 수산물 판매여부 등이며,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음식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우렁χει(명게), 전복, 방어, 부세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사법처리 및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언론 홍보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업체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함에 따라 도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인천시, ADB 국제행사 대비 숙박업소 일제 정비

공식 지정호텔 등 105개 사전 위생점검 및 종사자 친절서비스 현장 교육

인천광역시와 코로나19 이후 회복되고 있는 관광수요와 경기 활성화에 대비하고, 5월에 있을 2023년 ADB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우수 숙박업소 등 일제 정비에 나섰다.

먼저 ADB 연차총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21일까지 공식 지정호텔 등 우수 숙박업소 105개소의 사전 위생점검과 종사자 친절서비스 현장 교육을 병행해 실시한다.

이번 위생점검에서는 ▲객실·침구·욕실 등 청결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환기 및 조명 등 관리상태 ▲객실 내 먹는 물 제공 방법 및 수질관리 등 영업자 위생관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친절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서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ADB 행사 기간(5.2.~5.5.)동안 시청 및 구청에 숙박업소 위생관리 상황실을 운영(4개 반 8명)해 숙박 불편 사항 접수 및 처리 등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4월부터 6월까지



우수 숙박업소(I-STAY, THE BEST) 248개소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해 기존 우수업소는 재정비하고 미달 업소는 지정 취소한다.

또한 신규 업소를 추가 발굴하고 우수 숙박업소 지정업소는 표지판 제작 배부 및 위생용품 지원, 인천 투어 홍보 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숙박업소 중 '22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위생 등급이 낮은 일반관리업소 137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취약 사항 파악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우수업소로 상향될 수 있도록 레벨업(Level-up)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김석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숙박업소 일제 정비를 통해 인천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 및 국제도시 인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친절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대구시,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무신고 숙박업소 집중 단속

시 및 구·군 위생부서에 불법 숙박업 신고창구 운영

대구시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불법 숙박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숙박문화를 조성하고자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유숙박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숙박서비스로 매년 그 시장이 커지고 있고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며, 현행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및 농촌민박업(농어촌정비법)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시는 시 위생정책과 및 민생사법경찰과, 구·군, 대구경찰청 및 숙박협회와 합동으로 8개 반 33명의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계도 활동과 단속을 병행한다. 먼저, 에어비앤비에 게시된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숙박업업을 중지할 것과 지속영업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각인시킬 예정이다.



또한,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계도 공문을 발송해 게시판에 부착시킴으로써 영업주와 숙소 이용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사전 계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반이 현장에서 단속 후 엄정하게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불법 숙박업 신고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시와 구·군에 숙박단속 담당자의 전화번호로 불법 숙박업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불법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위반업소의 소재지 관할 신고창구에 위반업소의 상세 주소(동, 호수 포

함), 신고내용 및 근거를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함께 신고하며 된다.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철거한 위반내역 조사를 통해 조치될 예정이다.

김홍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공유숙박은 기존 숙박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위해 도입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이번 집중 계도와 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숙박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새희망! 새울릉!

봄여행, 즐길준비 되셨나요?

봄여행

울릉도·독도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봄여행

천혜의 자연과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울릉도·독도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낭만과 즐거움을 느껴세요!!

김태흠충남도지사, 다시 문연예산상설시장 현장방문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찾아 상인들과 소통...“대규모 주차타워 건립 지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일 한 달간 정비 후 재개장한 예산상설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주차타워 건립 지원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날 홍문표 국회의원과 최재구 예산군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과 함께 시장을 둘러보면서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상인들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급격한 방문객 증가와 전통 5일장에 따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대규모 주차타워를 건립할 수 있도록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은 대규모 유통업체 진출 및 온라인 거래 위주 소비패턴 전환으로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예산상설시장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전통시장이 발전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상설시장은 지난 1월 오픈스페이스를 개장한 이래 2개월 동안 18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방문객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 문제가 불편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다. 도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 건축면적 4268㎡, 지상 2층, 주차면수 120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다. 예산상설시장은 정비 기간 동안 기존 시장 내 가게 5곳 외에 16곳의 가게를 추가했으며, 불규칙하던 장터광장 바닥과 화장실 2곳 개선 및 손님대기소를 만들어 쾌적한 쇼핑공간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위생점검은 물론 시장 및 관광지 연계 가이드북 제작, 물가관리 등을 위한 백종원 대표와 관계자 간담회 등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였다. 최정근기자

양양군, 농어촌 보안등 75곳에 신규 설치

양양군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1억 2천만 원을 들여 읍면 농어촌 지역 75곳에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한다. 보안등 설치하는 농어촌 지역의 각종 사고·범죄를 예방하고 야간에도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이 지난 2월 읍면별 보안등 설치 수요조사를 한 결과 84곳이 접수됐고, 이중 설치조건 및 시공가능 여부 등의 적합성 조사를 거쳐 75곳(읍면별 12~13개소)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3월 27일 보안등 설치 공사에 착수했고, 내달 중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규로 설치되는 보안등은, 에너지 효율과 내구성이 좋은 LED등기구 제품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되는 물론이고 GPS 방식의 자동점멸기가 장착되어 점멸시간 자동화로 관리의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지역의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10개소의 농어촌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여, 총 5,412개의 보안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강릉의 무궁무진한 매력, 6월 도민체전에서 펼쳐진다

3일(월) 연출 용역보고회 개최, 개회식 등 행사 준비에 만전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강원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되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며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강원과 강릉의 ‘무궁무진’한 매력이 펼쳐진다. 강릉시는 3일 오후 2시 시청에서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강릉지역 기념식에 대한 연출 용역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양대체전 일정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시기와 겹쳐지면서 개회식과 출범 기념식을 한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와 함께 양대 체전의 개회식의 핵심주제와 연출 구성 등을 논의한다. 더 큰 변화로 확장하는 도시, 창의가 만든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미래와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 강릉은 확장·창의·이음의 DNA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력을 뽐어낸다는 의미에서 ‘무궁무진 강릉’을 양대 체전의 핵심 주제로 내세운다.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 조성되는 개회식 무대는 강릉 DNA를 나타내는 여러 개의 육각형 조형물이 조합된 헥사(HEXA) 스테이지를 조성하여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경포대에 떠오른 다섯 개의 달을 의미하는 다섯 개의 육각형 조형물에는 초대형 LED를 설치하고, 무대 가운데에는 민선 8기의 핵심 목표인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의 관문을 나타내는 LED 슬라이딩 게이트가 설치된다. 개회식은 강릉의 무궁무진한 매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성화 점등,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및 퍼포먼스 등이 210분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개회식을 마무리한 후, 특별 공연으로 약 10분간 500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드론쇼가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개회식 연출 구성뿐 아니라 읍·면·동을 순회하는 성화 행사, 관람객 안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행사와의 협의해 연출을 보완하여 빈틈없이 행사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홍규 시장은 “20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도민체전이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할 대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도민체전 개회식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강릉지역 기념식과 함께 열리는 만큼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강릉에서 개최된다. 최만식기자

철원군,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추진

철원군은 2023년 상반기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6월까지 낡고 위험한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간판 추락 등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폐업과 이전으로 방치된 간판이나 노후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간판에 대해 군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무상으로 철거를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로,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또는 해당 간판의 관리자가 철거신청서 및 동의서를 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개발팀을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철원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낡고 방치된 간판을 사전에 철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세나기자



"영화, 방송 촬영... 제천에서 어때요" 21일까지 공개모집



(재)제천문화재단이 지역 내 영화, 드라마, 방송(예능제외) 프로그램 촬영을 지원하는 ‘제천 로케이션(location, 현장촬영) 제작 지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오는 2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역 영상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투자가 확정된 프로그램(국내·외 장편 영화, 지상파, 케이블, OTT 서비스 등에 편성 확정된 드라마 및 방송(예능 제외))이 지원 대

사이다. 제천 촬영이 3회차 이상이거나 2곳 이상을 방문하면 최대 5천만원 까지 지역 내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원해준다. 신청이 접수되면 추후 선정심의위 심사를 거쳐 5월경 선발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하소 생활문화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

거나, 재단 영상미디어팀에 문의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영화, 드라마, 방송(예능제외)프로그램은 물론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분야에서도 제작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영상 콘텐츠를 지역 내에서 촬영해 인지도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철원군 국제협력 재개, 농특산물 판로 확대

철원오대쌀 호주시장 수출 확대(㈜삼양호주와 100톤 이상 수출협약 체결)

철원군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현중 철원군수를 단장으로 한 11명의 국제교류 확대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단을 구성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를 방문했다.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싱가포르를 찾아, 철원만의 천만 관광시대를 열기 위한 주요 관광시설을 방문하고 체류형 관광시설을 벤치마킹했다. 이후 3월 27일 오전 호주 브리즈번 시청 및 시의회를 방문하여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진행했으며 대한민국 브리즈번 출장소를 방문하여 오는 7월 시행하는 해외영어캠프 계획을 공유하고 참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후 강원원더마켓을 방문, 강원농특산물 수출 및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주)삼양호주 본사를 찾아 지난해까지 30톤을 수입하던 철원오대쌀을 올해부터 100톤으로 확대하고 향후 (주)삼양호주 물류센터를 철원에 건립하기로 협약을 가졌다. 협약식 자리에는 대한민국 브리즈번 출장소장(배한진)을 비롯한 퀸즐랜드 한인회장(김형남),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사무국장(김태성), 월드옥타 브리즈번 지회장(정상국)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3월 28일에는 로건시를 방문하여 은퇴자를 위한 마을을 조성하고 편의시설 확충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시청관계자 및 시의회 의장

을 만나 의견을 나누었으며 실제 은퇴자 마을(Habour Town 및 Hope Island)을 방문해 주요시설을 확인하기도 했다. 3월 29일에는 올해 7월 해외영어캠프를 진행할 버펄가리 공립학교(Burpengary State Secondary College)를 방문,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수업을 참관하며 학생들과 홈스테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후에는 퀸즐랜드주 교육부에서 피아 세인트클레어(Pia St Claire)차관과 해외영어캠프 재추진을 위한 협약을 진행하고 지난 2019년 철원을 방문했던 퀸즐랜드 국제교육사무소 잭 스타티스(Jack Starthis)국제교육국장을 만나 우의를 돈독히 하며 국제교육사무소(EQI) 프로그램 및 홈스테이 운영방안, 학생안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했다. 이현중 철원군수는 “이번 국제교류 확대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철원농특산물 수출을 확대해나가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청소년 해외영어캠프를 재추진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과 천만 관광시대를 열어갈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드리안 슈리너(Adrian Schinner) 브리즈번 시장은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제14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정상회의(2023APCS) 및 시장단 포럼에 이현중 철원군수를 정식 초청했다. 이세나기자

단양군, 스포츠의 계절 4월 체육행사 ‘풍성’

본격적인 스포츠 계절을 맞아 단양군에서는 전국규모의 체육행사가 잇따라 개최돼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특히 볼 전망이다. 군은 민선 8기를 맞아 3월 조직개편으로 체육과와 레저팀을 신설해 땅, 물, 하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레저스포츠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했다. 4월 한 달간 단양팔경 걷기 및 마라톤대회 등 전국규모 체육행사와 지역 단위 체육행사를 합쳐 모두 7건의 행사가 연이어 개최된다. 4월의 첫 시작으로 지난 1일 단양군탁구협회장기 탁구대회가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려 탁구 메카 단양을 대표하는 지역 동호인 150여 명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또한 8일,9일 이틀간 국민·문화체육센터, 매편·다목적체육관에서 제4회 단양소백산배 전국9인제 배구대회가 열리며 단양공설운동장과 매편생활체육공원, 적성면체육공원에서는 단양군 풋살연맹 주관으로 제10회 소백산철쭉제 전국풋살대회가 치러진다. 연이어 단양군수배로 치러지는 제8회 골프대회, 제26회 게이트볼대회, 제15회 그라운드골프대회도 각각 대

호단양C.C, 별곡게이트볼장,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진다. 단양군육상연맹이 주최하고 전국마라톤협회가 주관하는 제17회 단양팔경 걷기·마라톤대회는 16일 절경의 코스로 알려진 단양강 호반도로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3000여 명의 건달들이 참가한 가운데 3km 걷기를 비롯한 마라톤 5km, 10km, 하프코스 등으로 진행된다. 군은 특색있는 체육행사인 전국가누대회, 전국배러대회 등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전국 등 단위 대회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단양팔경 초·중·고 학생 배드민턴대회, 전국남녀9인제 배구대회 등 굵직한 대회는 해마다 1만여 명이 단양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기종목인 파크골프를 비롯한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골프 등은 군수기, 의장기, 체육회장기 등 매년 개최해 주민 화합을 위한 관내 체육대회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4월에 열리는 각종 체육대회에 선수와 임원, 가족 등이 전국 각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기 활성화와 함께 스포츠 메카 단양의 명성을 이어나가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대백시, 2023년 1분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대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29일 2023년 1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1분기 도로관리심의회는 통동소하천(내량천) 정비사업, 장성동 단단마을 전력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철암 쇠바우골 커뮤니티 하우스 상수관로 매설공사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공사 중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공사 관리를 하기로 했다. 심의 결과는 공사 시행사에 통보되며, 공사 시행사는 통보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심의회 부위원장 정인숙 건설도시국장은 “도로공사 시행에 앞



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도로관리심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도로의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이미 매설되어 있는 각종 점용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분기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유상근기자

충남도, 디스플레이 초격차 핵심거점 만든다

충남도가 삼성디스플레이 등과 손잡고 천안·아산에 디스플레이 글로벌 초격차 확대를 위한 핵심 거점을 만든다.

세계 디스플레이 생산액의 20% 이상, 국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충남의 디스플레이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최근 정부의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응모, 전방위 유치 활동을 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화단지는 첨단 기술에 대한 국가적 육성·보호·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경제 안보와 연관 산업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산업 통상자원부가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된 3개 산업 15개 기술이다.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예비 타당성 조사 신속 처리 또는 면제, R&D 우선 선정,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디스플레이산업은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4%, 2021년 기준 총 수출의 3.3%, 제조업 시설투자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21년 기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1557억 달러이며, 우리나라는 520억 달러로 33.3%를 기록했다.

2004년 일본을 제치고 17년 동안 이어온 디스플레이 점유율 세계 1위 자리를 이해 중국(41.3%)에 내줬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는 2월 말 산업부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 현재 평가에 대응 중이다.

도는 특화단지 조성 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1위 선도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에 있고, 전후방 산업 중소기업도 378개에 달한다.

천안·아산에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과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 실증 인프라도 구축돼 있다.

도는 특화단지 비전을 '디스플레이 산업 안보 및 글로벌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혁신 클러스터'로 설정했다.

목표는 △산업 기술 선도 △지속가능 기반 마련 등으로, 중점 과제는 △혁신자원 집적화 및 투자 활성화 △전략기술 개발 추진 및 조기 사업화 △기술·인력 교류·협력 생태계 조성 등으로 잡았다.

충남 특화단지는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와 북부 BIT 일반산업단, 아산 스마트밸리와 당정 디스플레이시티 등 2개 시, 10개 산단, 면적은 1411만 9914㎡이다.

세부 사업은 17개이며, 총 사업비는 3258억 원이다.

주요 업종은 디스플레이 및 전후방 연관 산업이다.

현재 10개 산단 내에는 773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총 종업원 수는 5만 7511명에 달한다.

도는 특화단지를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플랫폼·소부장 테스트베드와 연계해 지정 효과를 극대화 하고, 도내 자동차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차량용 디스플레이산업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구축된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접근성을 활용하고, 관련 기업도 중점 유치한다.

도는 특화단지 지정 시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력 확보 △공격적 투자를 통한 글로벌 1위 위상 확보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초격차 및 경제 안보 실현 △중소·중견 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 제공 △전후방 산업 동반성장 △충남을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 안보 체계 마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도에서 디스플레이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쳤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며 "중국 등 후발주자들과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특화단지 지정 받기 위해 공모 대응 TF를 꾸리고,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협업하며,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공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TF는 도와 천안·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충남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기업이 참여 중이다.

최정근기자

삼성전자, 부산지역 삼성스토어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삼성전자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방한을 맞아 부산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0일까지 부산광역시 광안, 구포, 대연, 동래, 사하, 센텀, 해운대 등 7개 삼성스토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삼성전자가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선보인다.

삼성스토어의 현수막을 통해 부산 도심 곳곳에서 'WORLD EXPO 2030 BUSAN, KOREA'라는 영어 명칭이 부각되고 엑스포 유치 분위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부산 시내 주요 버스 정거장에서도 부산엑스포 응원 메시지를

를 넣은 갤럭시 S23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부산 외에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디지털 옥외광고 ▲삼성스토어 용산점 등 서울의 일부 매장 외벽 ▲인천공항 출국장의 디지털 옥외광고 등을 활용해 부산엑스포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2023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와 ISE ▲2023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2022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BIE 총회 등 글로벌 주요 행사에 맞춰 부산엑스포 광고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중진기자



▲삼성스토어 사하점에 설치된 부산엑스포 광고

대전시,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최대 1억 6천만 원 지원... 4월 18일까지 온라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접수

대전시는 지역의 특화 소재를 활용한 우수콘텐츠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실감콘텐츠(XR 등), 만화·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융복합 공연 등 전 장르이며, 지정과제 2개, 자유과제 2개 분야에 참여할 기업을 각각 모집한다.

콘텐츠 제작지원금 규모는 총 4억 9,800만 원이며, 지정과제는 최대 1억 6,000만 원 자유과제는 최대

8,9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지정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3월 관내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 7개 수요제안서를 접수했다.

지정과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개의 수요제안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기업은 대전 전략산업 기반 관 민 주도 혁신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정과제를 수행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관내 콘텐츠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대전시에 본

사 또는 지사 등록이 완료된 기업이다. 타 지역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도 있다.

사업신청 및 접수 방법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문화콘텐츠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노기수 문화관광과장은 "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충북도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도시농부를 불러주세요

충북도는 농촌 일손부족 문제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모집에 이어, 도시농부를 필요로 하는 농가(농업법인 포함)를 모집하고 있다.

농가 모집은 충북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농부 인력지원과 인건비 6만원 중 2만 4,000원을 지원받는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만 75세 이하의 은퇴자, 주부, 청년 등 유용 인력이 농업 교육을 받아 도시농부로 육성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 도농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도시농부의 농작업 참여 횟수가 늘수록 수련도가 증가했으며 단시간에 높은 작업효율로 농작업을 마칠 수 있어 부족한 일손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농가는 인력을 지원받아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도시농부는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농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더 나아가 귀농·귀촌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에서 탈피하고 농작업 일손을 구하기 힘든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시·군 농촌인력증대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고정화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 KB신용정보(주)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31일 KB 신용정보(주)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센터'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타인(기업·기관 등)을 위해 전자문서의 보관·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면 보관기간 동안 문서 내용이 위·변조 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화문서를 센터에 보관할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본 종이문서의 폐기도 가능하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대면영업 축소와 무인점포 운영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 업무창구에

서의 종이문서 미생산 등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에 지정된 KB신용정보(주)는 전자문서 보관에 블록체인/양자내성 암호 기술을 활용한 문서보안을 적용하여 보안성 및 신뢰성이 강화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주)KB국민은행도 공인전자문서증거자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금번 KB신용정보(주)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이 전자문서보관 시장 1위 사업자인 하나금융T1에 이어 금융권 전자문서의 생성·유통·보관으로 이어지는 문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31일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워크숍을 열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31일 이상일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남사·이동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이 시장, 류광열 제1부시장, 황준기 제2부시장, 박재근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위원회 위원, 담당 부서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와 15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설계기업)들이 들어서게 될 남사·이동 국가첨단산업단지 SK하이닉스와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중심이 될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조성되면 용인특례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도시가 될 것"이라며 "자치단체 중 용인시가 가장 먼저 만든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국가첨단산업단의 원활한 조성과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많이 제공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재근 민간위원장은 "용인에 215만평의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이 조성된다는 인문보도를 접하고 가슴이 팽창히 벅했다"며 "이 시장이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큰 역할을 한 만큼 우리 위원회도 성심을 다해 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워크숍에서 국가산업단 단계적 과정, 시 차원의 추진단 구성과 역할, 정부·관계기관·시민과의 소통 등과 관련한 계획과 방침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시는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의 내용과 계획도 공유했다.

위원회에선 국가첨단산업단지,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외에 소부장 기업들이 입주할 추가 산단 조성, 도로 확충, 용수·전력의 원활한 공급, 배후 주거단지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 시장은 "용인시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상하면서 주안점을 두었던 것 중 하나가 다양한 소부장 기업들이 벨트 안에서 활동하며 반도체 생

태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것인 만큼 훌륭한 소부장 기업들의 입주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지원단 첫 회의에 참석해 용인의 구상을 전했다.

황 부시장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과 지역산업과의 연계 방안,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류 등에 대해 언급했다. 황 부시장은 국가산업단 조성에 따른 보상과 이주 문제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합당한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한 시의 입장도 전했다.

황 제2부시장은 "1983년 삼성반도체 기흥캠퍼스에서 첫 생산한 반도체 본향인 용인시에 미래 반도체 산업의 동력이 될 국가산업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뜻깊다"며 "용인시는 국가의 정책, 민간의 투자, 지역의 성장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일손이 필요한 농가·농업법인 여러분!

도시농부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충청북도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농·농업법인

지원내용: 도시농부 4시간 연봉비, 도시농부 인건비 24,000원 지원

도시농부 신청방법: 시·군 도시농부 신청서(별첨) 작성

시군	2023-04-04	총서	059-538	팩시	642-0304
보은	540-2932	세진	739-3342	영남	740-3664
영동	819-9794	연천	539-3027	원주	810-6003
영월	871-5483	양양	429-7393		

충청북도 도시농부 신청서

농업회사법인(주)민속한우, 안동시장학회 장학기금 1천만 원 전달

누적기부액 1억 2천만 원 기록, 지역인재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안동시 북후면 소재 농업회사법인(주)민속한우는 3월 31일 1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재)안동시장학회에 전달했다.

농업회사법인(주)민속한우는 오랜 기간 축적한 남다른 노하우로 대규모 한우 법인농가와 민속LPC(축산물종합처리장)를 운영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범적인 기업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권혁수 대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온 공을 인정받아 3월 7일 제57회 남세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지역교육발전과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눈에 띈다. 2011년부터 기부해 온 장학기금이 7회차에 이르면서 누적기부액은 1억 2천만 원을 기록했다.

권혁수 대표는 "앞으로도 정·상



생·투명·경영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아울러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지역인재육성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시장학회

에 보내주신 소중한 정성과 관심에 깊은 감사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주)민속한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지역의 우수 인재양성에 소중하게 쓰여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보은군청 사격선수 남태운, 2023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국가대표 선발

보은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사격선수인 남태운 선수가 제19회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의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남태운 선수는 지난달 인천 옥련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자부 10m 공기소총 1~4차 합산 2510.5점을 기록하며 선발됐다.

지난 2021년 개최된 제32회 2020 도쿄 하계올림픽 대회에서 10m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 출전했으나 4위를 기록했던 남태운 선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맹훈련에 돌입해 2023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자격을 획득해 메달에 다시 도전하게 됐다.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은 "남태운 선수가 공기소총 국가대표로 발탁되면서 다시 한번 보은군청 선수단의



▲보은군청 사격선수 남태운, 2023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국가대표 선발

위용을 드높였다"며 "명실상부한 스포츠 메카 보은으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선수의 기량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 "이웃사랑 따뜻한 나눔실천 1,000만원 기탁"

영광군은 지난 29일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에서 이웃사랑 성금 1,000만 원(현금 500만 원, 학습꾸러미 130세트)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는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고, 농산물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소비를 통해 위기의 농촌을 돕고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등 농촌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조기영 지부장은 영광 군민들에게 받고 있는 많은 사랑을 다시 군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참여하게 됐으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어 우리 군민 모두가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위



기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가의 어려움을 깊이 경청하는 등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종만 군수는 "지역의 위기를 군민과 더불어 슬기롭게 극복해 가기 위

이동순/기자

음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전국대회서 금빛 출발

음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음성군을 빛내고 있다.

육상팀은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전북 익산에서 개최된 2023 익산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해 해머던지기 종목에서 한국신기록(73.77m) 보유자인 이윤철 선수가 68.13m를 던져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했다.

또 소프트테니스팀이 지난 26일부터 2일까지 전북 순창에서 개최된 제44회 회장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 출전해 개인 단식 종목에서 박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박환-이요한 콤비가 개인 복식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처럼 음성군청 육상팀과 소프트테니스팀은 올해 첫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금빛 출발을 신고했다.



▲음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전국대회서 금빛 출발(왼쪽부터 이요한 박환)

음성군청 김상경 감독과 유승훈 감독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몰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음성군에 감사드린다"며 "다음 출전하는

전국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3명 '국가대표 선발'

경산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김유진, 차지원, 김일현 선수가 2023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4월 3일부터 소집되는 대표팀 강화 훈련에 합류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유진(27세) 선수는 2019년에 입단해 남다른 열정과 끊임없는 자기관리로 지난해 각종 전국대회에서 주 종목 1,500m, 5,000m에서 개인 최고기록을 갈아치우며 무려 10개 금메달을 획득한 경산시청 육상팀의 간판 선수이다.

차지원(21세) 선수는 대구체고를 졸업하고 2021년 경산시청에 입단해 실업 선수 생활을 시작한 선수이다. 입단과 동시에 지난해 103회 전국체육대회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이번 국가대표에 당당하게 선발됐다.

김일현(29세) 선수 또한 지난해 103회 전국체육대회 원반던지기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으며, 각종 국제대회에서 큰 몫을 해낸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선수단은 이규형, 주현명에 이어 국가대표 5명이나 배출한 전국 최강의 육상팀으로 우뚝 서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감독·선수들의 노고와 선전에 감사드리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멋진 모습을 기대한다"며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광삼/기자



함양 향우 김덕철 유빈테크 대표, 고향사랑기부 참여

3월 31일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원 전달, 고향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함양군 향우인 유빈테크 김덕철 대표가 지난 3월 31일 오전 함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함양 백전면 출신인 김덕철 대표는 김해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빈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금형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자수성가한 사업가이다. 지난 2018년부터 지역사회 불우 이웃을 위해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고향에 따뜻한 온정을 베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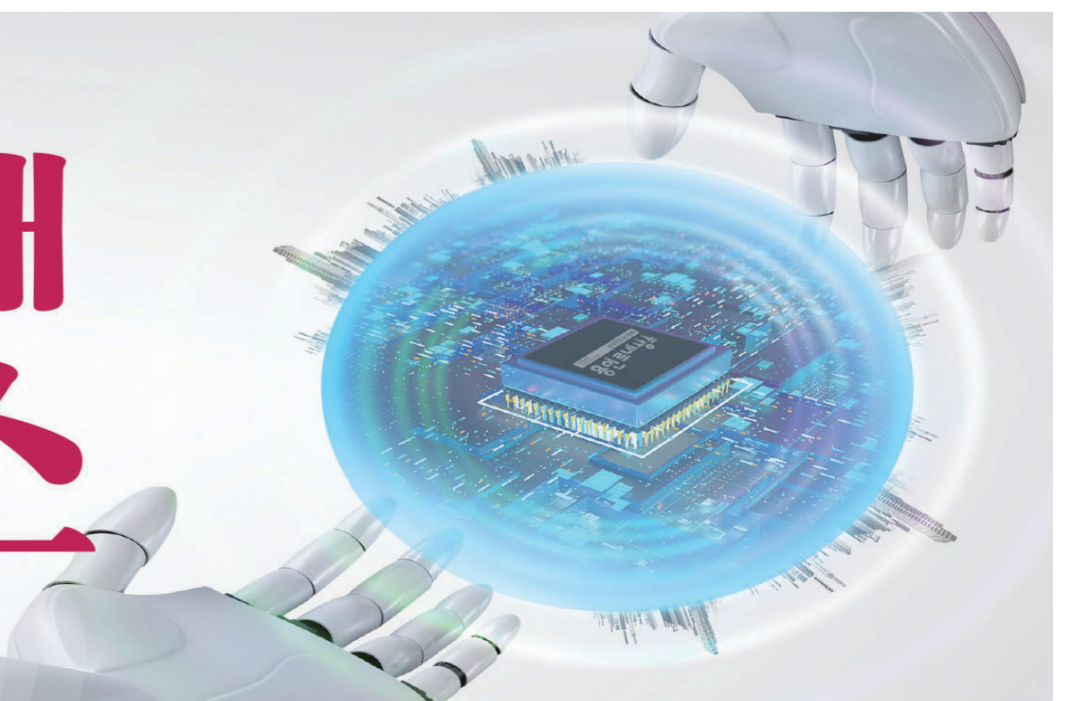
이날 김덕철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이 주민복지에 위한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들었다. 군에서 기부금을 잘 조성하여 고향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주시

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하신 기부금은 주민복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잘 쓰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을 방문해 기부하면 된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최덕수/기자



‘마한의 중심’ 나주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본격화



영산강 유역 고대 마한의 중심지로 평가받는 전라남도 나주시가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정비의 핵심 기관으로 각광받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총력전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찬란했던 고대 문화를 꽃피운 마한사를 복원하고 이를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문화재청에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통해 2024년 건립할 예정이다.

유치위원회는 1977년 반남면민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남마한유적보존회를 비롯한 마한 관련 단체, 지자체와 정치권, 학계·전문가, 기관·사회단체 등 시민 900여명이 위원회 명단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센터 유치를 통해 오랜 기간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전개해왔던 나주시의 마한사 복원 노력, 그간의 성과에 화룡점정을 찍겠다는 각오다.

명실공히 마한사 정비·복원에 앞장서 오며 마한의 수도를 주창해온 나주시는 지난 3월 17일 전라남도에 센터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센터 후보지로서 나주가 갖는 마한의 역사성과 상징성, 당위성 등을 담았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한 관련 유적·유물, 국립나주박물관·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등 핵심 연구기관·시설 운영 현황, 100년 넘게 지속해온 나주의 마한사 복원의 흔적과 노력, 정책적 성과들이 폭넓게 포함됐다.

발대식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나주 유치 관련 기초 강연과 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홍보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날 발대식 이후 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나주는 내륙 바다였던 영산강 물길을 통해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고대 문명 교류의 거점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던 마한의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말하자면 국보 금동관, 보물 금동신

발과 같은 마한 관련 금은장식 위세 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이 나주다.

2021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영산강 유역 마한역사문화권 12개 지자체별 마한 관련 유적 총괄 현황에서도 총 2567개 중 나주시는 403개로 가장 많다.

단순 수치 뿐만 아니라 국가사적인 반남 고분군(국가사적 제513호), 북암리 고분군(국가사적 제404호), 오량동 옹관 가마터(오량동 유적·국가사적 제456호), 국보 제295호 금동관, 보물 제2125호 금동신발, 세계에서 가장 큰 옹관 등 나주에서 발굴된 마한 유산들의 상징성은 어느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이 독보적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국립나주박물관, 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등 문화재 관련 국가기관과의 연계성을 통해 마한 역사 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강조하고 있다.

나주시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 마한역사 교과서 발간해오고 있으며 대표 축제인 대한민국 마한문화제(총 6회), 마한 관련 학술대회(14회), 마한 유적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준비, 마한 관련 시민 단체 활동 등 마한사 규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특히 마한 역사의 상징이자 반남 고분군이 위치한 반남면민들은 마한 유적을 지키고 역사를 계승하고자 1977년 ‘반남유적보존회’를 결성, 지금까지도 마한사 복원·정비 활동과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나주시는 마한의 문화유산, 학술기관과의 연계성, 시민의 의지, 행정의 추진력 등 네박자를 갖춘 유일무이한 마한의 수도라는 점을 부각시켜 센터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를 빼놓을 수 없는 정토라는 나주는 역사성과 상징성에 있어 대표적인 마한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지역”이라며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나주 유치는 마한 역사의 실체를 규명하고 정립하고자 노력해왔던 나주 시민들의 노력과 성과에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말하자면 국보 금동관, 보물 금동신

김영안기자

경기문화재단, 2023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시행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원로 예술활동 지원 2개 부문 지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예술인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과 발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난 3월에 선정자를 발표한 ‘2023년 경기예술지원 1차 공모’에 이어 2차 공모를 시행한다.

‘2023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는 전년도에 이어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원로 예술활동 지원 2개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공모는 각종 예술창작 및 발표 활동 공모사업에 한 번도 지원신청을 한 적이 없거나 지원신청은 했으나 선정된 이력이 없는 도내 예술인과 단체의 생애 첫 지원을 통해 공모사업의 수월성과 높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지원 사각지대로 평가받는 만 65세 이상 원로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부터 원로까지 생애주기별 예술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1차 정가공모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장르별로 창작품 실연·제작 및 성과 발표를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공고일 기준 경기문화재단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에 주 관하는 기초예술분야 창작 및 발표활동 공모지원(공모전 수상 포함)에 생애 첫 지원신청을 하거나 선정이력이 없는 경기도 소재 전문 예술인·예술단체를 지원한다.

《원로 예술활동 지원》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65세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원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초예술 분야별 신작 또는 미발표작의 발표활동을 지원한다. 문학과 시각예술 분야는 예술인(개인)에 한하며, 공연예술 분야는 예술인(개인)과 예술단체 모두 지원가능하다.

특히, 공연예술은 단체로 지원할 경우 출연자가 최소 50% 이상 원로 예술인(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공모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 및 예술단체로 세부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 생애 첫 지원은 경기문화재단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 이력이 없어야 하지만 예술창작 및 발표 활동이 아닌 ‘예술인 자립 및 복지’ 사업, ‘코로나19 예술인 긴급생계 지원형’ 사업, 창작준비 및 리서치 단계 등에 선정된 이력만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신청 가능하다. 단, 2개 사업 모두 올해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1차 공모 선정 예술인 및 단체는 지원신청 할 수 없다.

2개 부문(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원로 예술활동 지원) 모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17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접수된 지원신청건은 전원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2023년 5월 12일 금요일에 최종 발표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일 목요일 17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접수된 지원신청건은 전원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2023년 5월 12일 금요일에 최종 발표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벚꽃 휘날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낭만 통했다”

수도권 시민 대상 버스킹 홍보행사 성료

강원도가 4.1 벚꽃 만개한 서울대공원 일원에서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우리 특별한 순간’ 버스킹과 강원도 경제·관광 홍보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홍보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명선 강원도행정부지사, 강옥희 강원도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인숙 강원도디자인진흥원장 등이 참석해 강원도 알리기에 힘을 더했다.

“특별한 별을 볼 수 있는 청정 강원도의 초대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서 강원도관광재단,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관광협회 등은 서울대공원 중앙광장 내 특별자치도 대형 별풍선을 중심으로 20개의 경제, 관광 홍보 부스를 꾸렸다.

부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비롯해 강원더블볼렛이벤트, 강원도 공식 SNS채널 구독 이벤트, 강원샷건트레이팅, 강원대명여지도, 강원행기 컨설팅 등 다채로운 경험중점 이벤트와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또 하이원, 용평, 알파카월드, 한화워터파크, 춘천 남이섬, 대명소 등 도내 유명 리조트도 참여해 강원지역 별거리를 자처하며 수도권 시민들의 발길을 모았다.

특히 오는 9월 열리는 세계산림엑스포의 공식 마스코트 삭이, 나리, 차차, 그루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몽초 등은 이날 대공원을 찾은 어린이들과 포옹하고 사진 찍으며 인기를 독차지했다.

이날 대공원 내 꼬끼리 열차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응원하는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공원 나들이객의 시선을 끌었다.

또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인플루언서, 강원도 소셜크리에이티브들은 공원 내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거리홍보와 SNS 등을 통해 강원도를 알렸다.

이날 버스킹에서 가수 알리와 홍이 측은 서울대공원 호수 저널 노을을 배경으로 ‘청춘’, ‘봄야’, ‘별 보러가

자’, ‘걱정말아요 그대’ 등 감미로운 선곡으로 공연을 찾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강원도의 따스한 여유를 전했다.

특히 거리홍보 이후 버스킹을 감상하던 김진태 도지사는 가수 알리의 초대로 무대에 깜짝 등장해 갑작스런 노래 요청에도 가수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를 열창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나해 대한민국 국민 1억 5천만 명이 강원도를 찾았다. 국민 1명이 3번씩은 다녀간 쉼인 듯한 우리 강원도가 두 달여 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어 서울로 적극 홍보하려 왔다”며 “강원도 발전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인 만큼 보다 아름답고 멋진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강원도를 더욱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등원기자

금천구, 자체 제작 공연부터 공연예술축제까지 금나래아트홀에서 만나다

금천문화재단이 2023년 금나래아트홀 기획 프로그램 라인업을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연/전시’ 공지사항에 공개했다.

금나래아트홀은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을 소화할 수 있는 552석의 다목적 공연장으로 매년 2만여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문화예술 전문단체와 꾸준히 협업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작품 제작을 시도하고 있어 예술가에게는 창작 실험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자체 제작한 공연부터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돼 선보이는 다채로운 공연이 금천구민과 서울 서남권 시민을 찾아갈 예정이다.

4월에는 조선 최초 서양화가이자 작가, 여성운동가였던 나혜석의 생애와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음악공연 ‘소녀의 꿈’이 초연으로 펼쳐진다. 금천지역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알리와 협업해 그녀가 살았던 시대와 생전에 즐겼던 음악을 라이브로 선보인다.

5월에는 전문 탈꾼들과 금천구민이 함께하는 ‘금천가족극단 예술축제’가 열린다. 관객들에게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탈춤을 가까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7월에는 휴가철을 맞아 예술과 물놀이가 어우러진 ‘금천여름예술축제’가 26일부터 5일간 개최한다. 어린이 물놀이장, 시흥계곡, 구청 썬크광장, 금나래아트홀, 금천뮤지컬센터 등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 공연, 영화, 원데이클래스 등을 통해 다양한 예술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선정돼 선보이는 마방진의 ‘회란기’(5월), 연희광방의 ‘음마깽깽’, 터치드의 ‘하이 라이트’(7월), 금천교향악단의 ‘브로드웨이 뮤지컬’(9월), 극단 오징어의 ‘식구들 찾아서’(10월),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오셀로와 이아고’(11월), 바닥소리의 ‘제비씨의 크리스마스’(12월) 등이 주민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오진기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금나래아트홀은 금천구를 포함해 서울 서남권 시민의 공연예술 향유를 위해 우수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라며, “올해도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된 금나래아트홀의 행보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박환신기자

4년 만에 열린 안동벚꽃축제 ‘상춘객 인산인해’



4년 만에 열린 안동 벚꽃 축제에 상춘객들이 몰려들었다. 축제가 열리는 낙동강변 벚꽃길과 탈춤공연 일원은 흥날리는 벚꽃비사 이로 추억을 남기려는 관광객들이 넘쳐나며 그야말로 북새통이다.

MZ세대부터 가족 관광객, 봄 나들이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가득하다.

이번 ‘2023 안동 벚꽃 축제’는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열리고 있다. 올해는 ‘벚꽃길만 걸어요’라는 주제로 경북권 최대 벚꽃 근극지를 배경

으로 관광객들이 다양한 체험과 공연,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야간에 펼쳐지는 벚꽃 조형쇼, 네온아트 전시 등은 색다른 벚꽃길의 운치를 선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나는 놀이동산(바이킹, 탬버린 등), 뽕굴뽕굴 워터볼 체험, 추억 속 달고나 체험, 라디오 부스 △ 재미있는 소품을 구입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골라골라 플라마켓&체험존 △ 벚꽃 나들이에 즐거움을 더하는 먹거리존 △꽃달달 클래스 벚꽃이벤트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윤근수기자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D-33【왕의 차 진상식】수도권에 알렸다!

(재)하동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하승철 하동군수)는 엑스포 사전 불입 행사로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서울 청계 광장에서 조선 시대 임금에게 지리산 명품 하동 차(茶)를 올리는 ‘왕의 차 진상식’을 개최했다.

이 사전 불입 행사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에서 열리는 하동세계차엑스포를 수도권과 서울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역사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연했다.

방송 베테랑 이재용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이 행사는 팸패라, 북춤 공연을 시작으로 조선시대 의상과 소품 등을 갖춘 여가 및 왕의 차 진상행렬, 국왕에게 햇차를 올리는 진상 의례, 아름다운 궁중 무용을 선보이는 화합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우리에게 수사반장자 전일기 김희장 역(役)으로 우리나라 방송사에 큰 역할을 해 온 ‘국민 아버지’ 최불암씨를 행사 중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뜻깊은 위촉식이 있었다.

하승철 공동조직위원장은 “왕의 차



진상식을 통해 하동차의 우수성을 서울 시민에게 알리고 직접 하동에서 하동 차도 즐기고 하동의 수려한 경관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사장에는 왕의 차와 서울 시민과의 만남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농작 제품 전시 및 판매, 전통놀이체험, 하동세계차엑스포를 소개하는 엑스포홍보관 등 다채로운 전시·체험·홍보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하승철 군수와 박옥순 사무처장 등은 진상식 행사를 마친 후 광화문 거리 및 청계 광장에서 직접 거리 홍보에 나서서 서울 시민들에게 2023하동세계차 엑스포 개최와 하동차(茶)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한편,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는 국내 최초 차를 주제로 한 정부차 승인한 공식 차제행사로 경상남도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하동세계차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라는 주제로 내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1일간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등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 차의 역사와 생태 이야기를 소개하는 차 천년관, 몸과 마음의 심신을 치유해 주는 웰니스관, 나라별·시대별 차의 역사와 문화,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월드티아트관, 차 관련 산업융복합관 등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람객에게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생산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행사인 국민과 함께하는 왕의 농작 진상식을 시작으로 행사기간 동안 다례 체험, 각종 공연, 이벤트 등 많은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이 차의 가치와 효능을 직접 느끼게 하고, 하동과 경남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도 연계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최광용기자

2023 청산도 슬로걸기축제

보보보 오오오 치유정원 청산도로 오라

2023년 4월 8일(토) ~ 5월 7일(일)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주최:  완도군 주관: 청산도슬로걸기축제추진위원회


2023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치유의 바다를 낚다, 청정 바다를 먹다.

2023. 5. 4(목) ~ 5. 7(일) / 4일간

완도해변공원 일원



주최:  완도군 주관: 장보고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